NOV 9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62 1981년11월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November 5, 1981

국정자문위원들 교민들과 간담회

"통일은 제1의 과제"

북한방문 광주사태등도 거론

◇국정자문위원들이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만, 김용완, 김정렬, 이호씨.

토론토를 방문한 이호(전 법무장관), 김정열(전 국방장관), 김용완(전 경제인 연합회장), 홍승만(전 대한변호사 협회장)씨등 국정자문 위원들은 31일밤 총영사 관저에서가진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1)현정부는 통일을 제1의 사명으로 생각하며(2)교민들의 북한방문은 시기상조다. (3)광주사태는 북한의 사수로 일어난 국가존망의 위기였다. (4)한국에서 일어난탄압은없다 는등요지의 발언을 했다.

김옥진 국정자문 위원회 사무처장겸 청와대 비서관을 대동한 이들은 북미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해외교포들의 여론을 파악, 한국정부에 전하는것을 목적으로한 대통령 친선 사절단이다.

이들은 30일 로스엔젤리스, 뉴욕을 거쳐 토론토에 왔다가 1일 워싱톤으로떠났다. 캐나다 도시로는토론토만 방문했다.

국정자문위원은 보통 매월1회 국정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현재 구성원은 최규하의장, 허정, 박충훈, 김현철, 백낙준, 이병도, 민복기, 이영섭, 박순천, 홍종인, 이숙종, 유진오, 유달영, 고재필, 강원룡, 이형근씨 등 각계의 원로급 인사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민들은 ① 트루도 수상의 방한때 한국정부가 캐나다에 대한 한국인 이민증가문제를 강력하게 제시하지않는 이유, (2)정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인권을 보장할의향은 없는지?(3)정부가 교민들의 북한방문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달라는등의 의견을내놓았다.

주요문제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교민들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통일에 아무 도움을 주지못한다. 이곳의 최홍희, 최덕신씨등이 북한과 내통, 마구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그들은 말과 행동이 틀린자들이다. 북한은 이들이있는 토론토에 마수를 뻗쳐 북미판「조총련」을 조직하려는 계획을 갖고있다.

북한은 한국측의 통일노력을 정치적 선전에만 사용한다. 그 일예로 박대통령때 7.4공동 성명후 김일성은 72년 이후락 전 정보부장과 만난후 남북회담을 시작했으나 정치적 이용가치가 없자 73년 8월 남북회담을 폐기했다.

그들은 작년 광주사태직전에는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했으나 광주사태가 가라앉자 회담제의 주장을 얼버무렸다.

전대통령은 작년1월과6월 김일성에게"언제, 어디서라도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그들은 정치적 힘이 없는 사회단체끼리 모이자고 말한다. 그들의 고려연방제 주장은 중국의 국공합작, 또는 월남·월맹 합작이나 같은 얘기다.

"정부는 사과한마디 없이 광주사태를 잊자고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는 교민들 의견에대해 자문위원들은"광주사태는 5월17일에 있었고, 5월21일은 북한측의 남침작전개시일 이었다. 정부가 사태를 진압하지 않았으면 지금쯤은김일성이 서울에 와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는데 북한측의 침입 가능성등을 자꾸 공언해서 위기의식을 조성한다. 반공법을 없애고, 양심의 자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 정치인들은 신뢰받을 것이다."라는 홍순관목사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신문 제1의 주장이 반공법을 철폐하고 김대중씨를 풀어주라는 것이다. 현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서 반공법으로 탄압하는일은 없다" 고 답변했다.

김대중씨등 정치범문제에 대해 홍승만위원은"김씨 가족들이 면회를 못한다고 주장하는것은 옳지않다. 현재 교도관은 적고복역수는 많기 때문에 복역수는 월 10분간 교도관 입회하에 가족을 만난다. 정치범이라해서 이런 면회원칙에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년9월 이북에 다녀온바있는 교민 황대연씨(의사)는"아무리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이북에가면 2개월이상 못산다. 평양에가면 전체주의 공기를 확 느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가서 직접 보고 듣는것이 좋다" 라고 주장했다.

고종옥 신부는 북한방문자의 공통된 소감을 "(1)나는 이북에 가서는 살지 않겠다. (2)그곳에 자유는 없다. (3)한국보다 경제적 후진이다." 이라고 요약하고"북한을 방문하면 그들에게이용당한다"는 소극적 생각보다는 김일성대학 축구팀도 이곳에 초청, 자유를 맛보게하는 적극적 자세를취하자고 제안했다.

전택균전 한인회장은"감기전염때는 감기를 조심해야 하듯이 우리는 북한인들의 술책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社 告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실협회장단 선거전 시작

등록1호 임철원씨팀

오는 26일로 다가온 온타리오한인 실업인협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 등록1호가 탄생, 선거전이 시작됐다.

2일 현집행부의 부회장인 임철원씨는 총무겸 재무를 맡고있는 최복기씨와 회원 하소영씨를 부회장후보로한 회장단 선거후보등록을 마쳤다.

오는 11일 마감되는 회장단 후보등록 기간중에는 임씨팀외에 차선겸씨가 김이열, 조기연씨와 런닝메이트로 곧 등록할 예정이다.

이미 9월말 회장출마를 결심한 임후보는 3일"그동안 부회장후보 물색, 득표가능선을 점검하다가 약2주전 선거준비 체제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협회이사, 부회장등을 역임한 임씨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회장출마동기를"그동안 협회운영에 관계해 왔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노력하면 더 많은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것을 발견,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봉사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회장으로서의 포부등에 대해 임씨는"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왔던 협동조합문제만 해결되면 연간약 500~700만달러의 순익을 올릴수 있다"면서 협동조합의 실현을 이슈로 내 걸었다.

협동조합문제는 회장후보로 출마할 차선겸씨가창립준비위원장으로 일해 왔다.

현재 실업인협회에는 약 550명의 회원이 있으나 4일현재 연 50달러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38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중 얼마나 많은 회원이 투표에 [illegible]할지는 큰 의문이다.

임후보는"약1 백명이 참석할것을 기대, 50명이상의 지지만 얻으면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26일하오6시돈밀즈의 돈벨리 홀리데이·인에서 연차총회와 함께열리는 이번 선거를 위해 더너와 함께 150석의 좌석만 예약했다.

◇인터뷰중인 최복귀(왼쪽), 임철원(가운데), 하소영씨.

"한국문학의 특성"

문협강좌, 박동규 박사

캐나다한국 문인협회(회장 박충도)는 금년도 마지막 문화강좌를 아래와같이 실시한다.

오는 19일(목) 하오7시 토론토 한인회관서 열리는 이번 문화강좌는 박동규 박사의 「한국문학의 현대적인 특성」(한국소설의 1945~1970년간의 변모사항을 중심으로)이다. 일반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입장무료)

저명한 고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며 문학 평론가인 박동규씨는 서울고교, 서울문리대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 수령, 서울대 인문대교수로서 59년 평론 "소설의 질서화 작용"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문단데뷔, 현재 심상사의 월간시지 발행겸 편집인.

박교수의 저서로는 「현대 한국소설의 성격구조 연구」, 「한국 소설의 구조」, 「현대 한국작가의 작품분석 연구」 및 서울대학 논문집에실린 「소설미학과 소설의 현대적 변화에 대한 논문」등이 있다.

박교수는 지금 토론토대학에 교환교수로와서"한국문학"을 강의하고있다.

보호주의무역정책 경고

美商務, 日관세 장벽에

〈워싱턴-UPI〉 말콤·볼드리지 미상무장관은 일본이 만일 미국상품에 대해 문호를 보다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여론과 의회는 보호주의무역정책으로 돌아서 결과적으로 미일양국이익증대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것 이라고 경고했다.

볼드리지장관은 이날 하원세입·세출위증언에서 미국은 일본의 관세장벽 때문에 수출정책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무역정책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한국일보 533-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W. (한국판 앞)

서 울 식 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 합니다—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 FREE(곧도착예정)		
●삼양냉면 1박스 5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청수냉면 1박스 2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오징어젖 Lb.(특별가격)		.80
●김(새로입하)	19.99	13.95

★햅쌀입하 ★햅쌀입하

	REG.	SPEC.
●멸 치 젓 Lb.	2.99	1.99
●어리굴젓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20% 할인		
●마늘·생강(특별가격)		1.45
●찹살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1.25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SHEPPARD. E. / KENNEDY / PITFIELD / McCOWAN / HWY 401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유콘 북쪽에서 유전발견
최소 40억배럴 추산, 시장성 높아

유콘지역(Territory) 북쪽 비유포트해에서 최소40억 배럴이 넘는 유전이 발견됐음이 28일 보도됐다.

칼가리소재 돔(Dome)석유회사는 미국엔지니어링회사의 협조로 동지역을 탐사, 2개의 공구에 석유가 매장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발견된 고파노아공구의 추산원유매장량은 18억내지45억 배럴이고, 또다른 코아코악공구에는 20~5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최신의 탐사기술로 이 매장량의 약 15~40%가 채유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이 유전들이 경제성을가진 채유가능 유전이 되려면 더 많은 탐사작업이 요구되나 최근 발견된 뉴화운랜드주의 18억배럴 매장으로 추정된 하이버니아 유전보다는 더욱많은실용유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돔」석유회사의 시추로 발견된 이 두개의 공구는 메켄지강 하구(델타지역) 70마일 북쪽에 위치한다.

석유탐사를 협조한 미국 달라스소재 드롤리아 엔지니어링회사에 의하면 이지역에는 지질학상 이와 비슷한 다른공구도 있을것이라한다.

이 유전이 시장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4억배럴의 원유가 생산가능해야 한다. 이들 공구의 탐사작업에는 빙산을 쪼갤수있는 시추선을 사용하기 위해 바다를 덮는 탐사선단이 띄워질 것이다.

이번 발견된 코파노아공구에서는 지하 10,486피트와 10,522피트 사이에서수분이 없는 약 240만 입방피트의 천연개스와 1일생산량 2,830배럴의 원유를 생산할수 있고, 코아코악공구에서는 지하 14,317피트 지대에서 1일생산량2,830배럴과 1,739만 입방피트 개스가 산출됐다.

「돔」석유회사는 82년도초에 이 지역 유전의 경제성을 더 조사한 뒤 본격적 탐사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소설「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오늘 쉽니다.

GM 81년형 14.2%로 대부
11월말까지, 크라이슬러도

새차를 사려고하는 교포들에게 기회가 생겼다.

제네랄 모토(GM)사는전국딜러를 통해 81년도형승용차에 대한 대부이자혜택을 실시했다.

교포자동차 세일즈맨 이한구(Grant Brown GM), 김병권(North York Chevrolet) 제씨 에게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번GM의 대부이자혜택기간 11월1일~30일까지 이며, 현재 대부이자율 23%에서 약 9%나 적은 14.2%로 실시한다.

이와같은 파격적 대부이자혜택은 81년도 재고자동차의 정리에 있다고 이,김양씨는 말했다.

만약 1만달러 상당의 차를 4년상환, 현행23% 이자율로 구입하면 고객은 매달$316.41을 지불, 4년후 이자만$5187.68이 된다. 이에비해 14.2%의 이자율로 구입하면매달$274.26을 지불, 4년후 이자액은$3164.48으로 결과적으로 $2,000가량 이득을 보게된다.

82년도형 승용차의 가격은 81년도형에 비해 종류에따라$500~2000가량 올랐다. 결과적으로 81년도형 승용차구입시 이같은 인상가격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혜택은 차를구입, 30일까지 배달이 완료되어야 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들은 30일보다 3,4일전에 계약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한편 클라이슬러사 에서도 82년도 자동차에 대한 할인판매를 하고있다. 종류에 따라$200~1000까지 현행가격보다 싸게살수 있다.

한인성당, 명칭바꿔 "김대건본당"으로

토론토한인천주교회는이번 교구장 카터 추기경의 승인을 받아 공식명칭을종전의"성요한 본당"(St. John the Baptist Korean Catholic Parish)에서 "복자 김안드레아(대전)본당"(St. Paul's Chuch Blessed Andrew Kim's Parish) 으로 바꾸었다.

김안드레아 신부는 한국인 최초의 성직자요, 순교자로 용기와 신앙에 투철한 18세기 한국교회 지도자였다.

특등 오윤섭씨
추계낚시대회성황

토론토의 한인낚시 협회(회장 정삼열)의 가을낚시대회가 10월31일 벨운공원 낚시터에서 85명 참가로 성대히 치러졌다.

트로피및 부상이 수여된 이날의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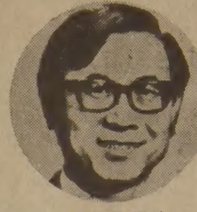
한편 동협회는 이번에입상된 입상자들에게 협회로 연락 바란다.

연락처 : 낚시협회 최남해총무(298-7806)

특등 : 오 윤 섭
대어 :
1등 : 박동규
2등 : 신 성 식
3등 : 남 익 희
4등 : 조 지 섭
5등 : 안 주 호
노익장상 : 이 용 현
잉어상 : 정 정 규
아동상 : 조 [illegible] 주
부녀상 : 이 종 시
희귀상 : 김크리스티나
치어상 : 이 상 곤
감투상 : 김 갑 출

중공의 시장성
교역시장으로서의 중공

11년전 닉슨 대통령의 중공방문 이후 중공은 미국쪽으로 급속히 문을 열었으며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서 서방세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중공 경제의 장래는 어떠한가? 교역 시장으로 중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영환 박사가 학구적 입장에서 중공경제전략과 수행을 평가한 것을 소개한다. 조영환박사는 아리조나 주립대학 아시아문제 연구소장으로 9월16일 상무성 국제교역청의 후원으로 아리조나에서 가진 국제교역 세미나에 대중공 교역 전망을 발표했는데 다음의 원고는 교포독자를 위해 정리한것을 본지가 발췌,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조영환 박사

지난 몇년간 중공 지도자들은 무슨 수단으로든지 4가지 현대화를 해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었으며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발전 모델을 외면해가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다. 중공의 10개년 계획(1976-85)은 너무 야심만만해서 축소 수정을했고 그 때문에 일본 기업계에서는 중공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렸다.

여러 지표로 보아 중공은 인구성장률 1.2%에 연간평균 7%의 GNP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작년에 중공과 48억 달러를 거래해서 홍콩, 일본 다음 3위의 중공 교역국이 됐다. 80년의 미-중공 교역액은 79년의 2배이며 4년내에 다시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가의 입장에서 중공은 과거 10년동안에 비해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모범도가 낮은 곳이다.

중공 민중은 정부가 공급할수 있는 것들(4대 수요물=TV, 테이프 레코더, 전기 선풍기, 세탁기를 지칭함. 전에는 자전거, 손목시계, 재봉기, 래디오였음)이상으로 요구하지만 등소평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편은 군부나 다른 지도층보다 일반 민중이다. 또한 현 지도층이 화국봉같은 정적을 격하시키면서도 제거하지는 않은 것처럼 정치격변이 과거와 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같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복지외에 민주적 개혁도 지도층 사이에서 논란되는 것같다.

미국, 작년3위의 중공교역국

중공은 농업과 경공업을 장려하고 장기적 중공업을 보류하는 일련의 새 정책을 채택했다. 농업, 경공업이 중공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자본도 적게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잉여 생산분을 시장수요에 따라 처리할 권리 즉 독립 경영권이 농업, 경공업에 적용되고 있다. 그결과 전문화, 효율화가 빠르게 됐다. 중공은 식량, 섬유, 공업자재 수입을 줄여야 하므로 농업을 수입대체 산업으로 세우고 외화를 최신 기술, 장비 도입에 배정하고 있다.

중공의 개정 해외투자법,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전문기술자, 지식인 대우개선, 이념의 융통성과 복합구조주의에 대한 관용, 각종 서비스 산업개발등은 중공의 현대화및 교역 3각화(미, 서구, 일본)가오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중공이 일본과의 계약을 취소한일로 상호 조심하게 됐지만 중공은 16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422개의 합작 투자와 5천4백개의 계약을 외국회사와 갖고 있다.

모택동때 중공의 경제정책은 빈곤타파, 후진부문의 발전촉구와 사회복지 확장이었다. 제3세계 경제현대화의 가장 전형적 형태는 주요 공업 단지와 같은 앞장선 부분을 조성해서 그 혜택을 사회 전반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중공은 이 두가지 방법을 혼합한 것같다.

모택동때는 자주 격동이 있었지만 GNP를 4배로, 개인소득을 2배 이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인도, 파키스탄, 벵글러데쉬보다는 빠르고 명치유신때 일본보다는 적은것이다. 현 중공 정치인들은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발전을 약속하고 있지만 서기 2천년까지 국민 개인 소득 1천 달러에 도달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북경 정부는 성장률에 촛점을 두기보다 국민을 만족시킨다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보조, 임금인상이 인플레, 예산적자, 국민의 기대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공의 평균수명은 중진국 평균보다 7년이나 길며 국민 소득은 북한보다 적다.(계속)

상점여주인 강도총맞아 중태
재미교포 김방자씨 피습

(시카고지사= 애틀란타지국)

아틀란타 교포 김방자 여인(38세,4085 그렌우드 로드, 디케이터)이 지난27일 하오10시,자영하던 그린우드 샤퀘트 푸드 스토어에서 하루매상을 강탈하려던 흑인 강도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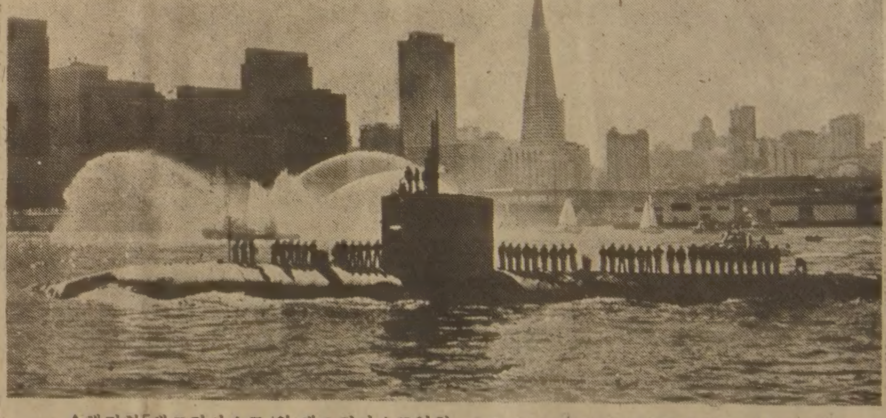
동 사건은 이날 밤10시경, 남편 김수명씨와 함께 상점을 보던 김여인이 "커피한잔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남편 김씨가 인근 위플하우스에 커피를 사러간 순간 일어났다.

바로전까지 상점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던 흑인 1명이 돌연 상점안으로 들어와 권총을 김여인에게 겨누고 금품을 강탈하자 이에 놀란 김여인이 앞가슴에 양손을 올리는 순간 범인이 총을 쏘아 왼손과 왼쪽가슴을 뚫고 위장을 관통했다고 한다.

이때 커피를 사가지고 돌아온 김씨가 현장을 목격 곧 경찰에 신고했으며 김여인은 디캅 제너랄 병원에 입원,대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

사건을 듣고 비상출동한 디캅 경찰은 김씨 상점 1마일 남쪽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고 있던 범인 로버트 어슈리 몰간(18세,3461 우드스 드라이브,디케이터)을 체포했으며 어슈리 몰간은 FBI에서 범죄사건으로 수배중인 8명의 범인중 한사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인은 지난 2개월전쯤에도 길이 30㎝가량의 칼을 들고 김수명씨가 상점앞 마당을 쓸고 있는 사이 상점에 들어와 김여인을 위협 80달러를 강탈,도주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날 어슈리 몰간은 면식범임을 의식하고 김여인을 죽이려고 사전계획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씨 부부가 이 상점을 인수한지는 1년이 되었다고 한다.


▲핵잠함「샌프란시스코」의 샌프란시스코입항―상항만의 소방선들이 마중나와 환영하고 있다. 이핵잠함의 모기지는 호놀루루의 진주만이다.〈상항-UPI〉

포드자동차 적자 3·4분기 3억여달러

포드 자동차회사는 3·4분기(7월~9월)에서 3억3천45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포드자동차회사는 동 기간동안 작년의 매상 81억달러보다 약간 증가된 87억달러의 판매를 기록했는데 작년도 같은 기간의 적자는 5억9천5백만달러였다.

안 상 엽

사람은 서로의 사귐속에서 살아간다. 사귐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중에는 듣는것과 말하는 두가지가 있다. 귀는 항상 열려있고 ,입은항상 닫혀있다. 그런 뜻에서 귀로 듣는것은 수동적이요,입으로 말하는것은 능동적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귀로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즐거운 노래가 입에서 흐르나 반면,사람이 나쁜 소리를 들으면 입에서 한숨과 분노의 말이 나오게 된다. 말하면 듣고 또 들으면 말하면서 빙글빙글, 좋거나 나쁘거나 서로 사귐과 관계를갖고 사는것이 인간이다.

성경에"귀 있는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많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귀가 있는데 왜"귀 있는자"란 말을 강조했을까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 속에는수많은 뜻이 담겨 있으나 귀가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와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있다는 데, 강조해 있다. 들어야 할 처지나 또는 듣고 조용히 소화를 시켜야 하는 자가 입부터 열어버린다면 그것같이 천박하고 비굴한 자가 없을 것이다. 듣고 참으면서 말을 소화시킬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 바라는 이웃에 대한 가장 귀하고 훌륭한 인격자요 봉사자인 것이다.

그러나 귀가얇고,생각이 얇고,그 혀가 가벼운 사람은 말이 귀를통해,마음을 거쳐 입 밖으로 속히터져 나오는데 그 속에는 독을품고 냄새를 피워 이웃을 비판하고 헐뜯을 뿐만 아니라,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슬프게하는 무책임한 방언자가 되는 것이다. 한 입으로 백성과 나라는 부끄럽게 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말하는 혀는 모든것을 태우는"불"이라고 성서는 말한 것이다.

말은 형체가 없는 것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에서 가장 악독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는 기구이다. 수년전 머리를 깎지않고 산발한"히피"들은 그들대로의 철학과 정신이있어"말 속에도 형식과 꾸밈이 있어서는안된다."고 일반인들이 듣기조차 거북한 말과 욕을 그대로 했던일이 기억난다."좋은말을 하는듯 하면서 좋은 사귐을 파괴시키고,고상한 말로 이웃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일삼는 입을 가진 사람은"히피"의정신에서 오히려 배울점이 있을 것이다.

열번 말을 듣는다 해도 이웃을 위해서라면 노력으로 말없이 참고 덕과 유익을 위해 한번의 말도 조심하는 것이 수양이 되고 성숙해진 이웃인 것이다. "누구나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듯하라"한 성서의 말씀은 듣기는 속히해도 말 하는데는"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착한말을 하라"는 말씀과 상통되며, 속히 말하는자는 마치 뛰는 망아지입에 자갈을 물리어 멈추게하듯 이웃과의 관계를 성실과 충성된 봉사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은 밥을주고,옷을 입히고,땀흘려 손발을 움직여주는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열성도 귀중하나 오히려 더 귀한것은 성실히 듣고,좋은 마음 그릇에 담아 살과피가 되듯 잘 소화를 시키고, 말없이 묵묵히 이웃과 사귐을 갖는 관계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람하고 섬기는 표준을 수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알려 명예와 자랑스러운 결과에 두지않고 가장 작은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곧 조용한 내 기도중에 형제를위한 기도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인 사 말 씀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시고 성장해온 본아리랑식당이 그 동안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던 주차장문제를 해결 하였읍니다.

그간 코리아타운 번영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본 식당 뒷쪽에 58대분의 주차장이 마련 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아울러 몇가지 메뉴를 추가하였아오니 배전의 애용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 순 채 배

아리랑하우스

요리부

중화요리
탕 수 육
탕 수 어
탕수 새우
라 조 기
깜 풍 기
팔 보 채
해 삼 탕
양 장 피
전복 요리
란자 완스

한국요리
잡 채
고추 잡채
낙지 볶음
오징어볶음
계 요 리
소고기튀김
돼지고기튀김
새우 튀김
생 두 부
전 복 회
민 어 회

식사부

한 식
갈비 정식
불고기정식(숙식)
조기매운탕
순두부백반
된장 찌개
김치 찌개
곱창 정골
육 개 장
갈 비 탕
만 두 국
떡 국
비 빔 밥
함흥 냉면
비빔 냉면
평양 냉면

중국식사
짜 장 면
짬 뽕
간 짜 면
삼선 짬뽕
삼선 짜장
삼선간짜장
울 면
삼선 울면
우 동
삼선 우동
군 만 두
짜 장 밥
잡 채 밥
잡 탕 밥

소고기볶음밥
돼지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야채볶음밥
닭고기볶음밥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716 BLOOR ST.W.
TEL : 532-2727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인정넘친 암환자의 병상

브롱스의 김여인,교우들의 헌혈·기도속에 회복빨라
시동생이 가족생활비 부담,교회는 사랑으로 뭉쳐

(뉴욕지사)

절망적인 위암에 걸려 병마에 시달리던 한 교포여인이 교우들의 헌혈운동과 정성어린 기도에 힘입어 회복의 희망을 안고 끈질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병상을 찾아보거나 주간 소식을 통해 환자의 호전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교우들은 사랑으로 뭉친 교회를 실감하고 있다.

더우기 환자의 친척들이 가족의 생활비를 떠맡았고 이 환자의 수술을 집도한 교포의사 2명, 마취를 맡은 교포여의사, 교포병리학의사가 모두 힘을 모은 이번 일은 교포사회의 인정미담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브롱스에 거주하는 김모씨(44)가 처음으로 위암이란 진단을 받은 것은 2년전인 79년 10월.

소화장애로 고생하는 부인을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았다가 위암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결과를 들은 남편 이모씨는 부인의 병명을 차마 가르쳐 주지 못한채 위궤양이라고 속이고 곧 수술을 하게했다.

그러나 김여인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고 혼자 고민으로 시달리던 남편은 절망끝에 부인 김여인을 데리고 묘지까지 보러 다녔다는 것이다.

이씨는 『누구 묘지를 보러 다니나?』는 부인의 질문에 노부의 묘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금년 5,6월경부터 김여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의사들은 투병의지를 기대하기 위해 이씨에게 부인의 병명을 알려주도록 권했다.

이씨는 지난 7월말 어느날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울며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8월초에 이씨는 가족회의를 열어 대책을 의논했다.

이자리에서 이씨의 동생은 직장생활을 하는 이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환자를 돌보라면서 가족의 생계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브롱스 사이언스2학년에 다니는 장남 등 2남1녀를 둔 이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의 투병을 도왔다.

지난 9월3일 김여인은 포체스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또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팀에는 한인의사 2명이 참가했고 한인 여의사가 김여인을 마취했으며 김여인의 병리검사도 한인의사가 맡았다.

수술을 한 김여인은 거의 40일간이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중환자실에서 영양주사와 수혈로 연명해 갔다.

김여인이 평소에 나가던 웨스트체스터연합교회의 한기범목사는 수술후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김여인에게 수혈할 피가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9월중순 교인소식으로 이사실을 알렸다.

이말을 들은 교인 10여명은 병원을 찾아 자신들의 피를 헌혈, 병원측은 헌혈한 분량만큼 김여인에게 맞는 피를 수혈해 주었다.

교인들은 교회 예배때마다 김여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했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기도를 해주었다.

교회부인회는 음식을 만들어 김여인의 가정에 보내 기도했으며 교인들은 주간 소식으로 듣는 김여인의 병세에 관심을 쏟았다.

남편 이씨는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후 부인의 병상을 돌보다가 저녁때 자녀들이 귀가하면 집안일을 하는 일과를 보내왔다.

이같은 정성 가운데서 김여인은 약 3주일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병세의 호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부터 간단한 유동식을 먹기 시작한 김여인은 며칠전부터 병상에서 일어나 병실안에서 걸어다니기도 하며 나날이 회복상태가 좋아져 환자자신도 투병에 희망과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약 5년전 이민한 김여인은 2년전부터 이 교회에 나온 착실한 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목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가 사랑으로 뭉쳤다』고 말하고 김여인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는 교인들은 『의학의 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기도가 전달된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해 주었다.

웨스트 체스터교회의 한 교인이 김여인을 위해 헌혈하고 있다.

프레슬리 연기위해 마약사용
사망원인 추궁재판서 담당의사 증언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약과용이 생명의 위험을 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무대에서 열연하기 위해 마약을 계속 복용했었던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프레슬리의 건강상담을 맡은 바 있는 라리 투불 박사는 과량의 중독성 마약을 프레슬리에게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 니콥포울스 박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프레슬리가 73년 병원에 입원 했을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어 있었다고 말했다.

투불박사는 자신이 프레슬리에게 마약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무대에서 열연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복용할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제언〉

코리안·파워

서만수 (문협회원, 한인회임원)

◇서만수 씨

캐나다 이민역사가 어언 10여년에 접어들어 그동안 피와땀을 흘린 댓가로 한인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단체들, 30여개의 교회들, 4개신문사, 블루어거리에운집한 코리어타운, 외환은행개점등 많은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한인회 사업중에는 10월 3일 "한인의 날"에BLOOR거리를 중심으로 퍼레이드를 벌일 계획이 있는 줄 안다. LA처럼 크고 성대하게는 할 수 없지만 이민 10여년의 눈부신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 뿌듯한 일이다.

몇몇 사람의 실수로 어글리 코리언의 감투도 얻었고, 김치, 마늘냄새로 김치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태권도로 코리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실업인협회로 코리언의 단결심을 보여주었으며, 미스유니버스 대회로 코리아의 아름다움을 보였으며 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로 세계의 눈길이 코리아로 향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한인사회는 발전할 것이고, BLOOR거리를 중심으로 코리언타운 번영은 더욱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교포들은 일치단결해서 코리언 POWER를 길러야 할 것이다.

중국사람들의 집념적인 단결심과 유태인들의 협동심을 그저 보고 넘기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하나하나가 긍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많은 단체들이 논란을 하고, 서로를 미워해 단체가 산산 조각이 나고 말 많은 사람들의 입놀림이 교포사회를 어둡게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져 멍이 들고, 서로 불신하는 오류를 남겼으나 그것은 한낱 과거일 뿐—.

가끔 듣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교포상회가 값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음식점 써비스가 조금 나쁘다는 이유로 교포상가를 불신하고, 이웃에게 까지 충동질해 한인사회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분들도 몇분 보았다.

물론! 몇센트 비싸고 써비스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한인사회 비젼이나 2세, 3세 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교포사회가 성장하고, 코리언 파워가 생기려면 교포상가를 이용해서 키워주고, 그 이윤으로 교포사회 발전에 도네이션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는 한 일부 몇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필자가 한인회 임원으로 들어간 후 아는 사람을 만나 한인회 얘기를 했더니 "그깟놈의 한인회" 하는 식의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몰랐다.

과거에 몇차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계속 그런 상태로 한인사회를 불신하고 외면한다면 한인회라는 단체나 그밖의 단체들도 존재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한인회뿐 아니라, 많은 단체들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명예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시간과 돈을 빼앗기면서도 교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할지라도 조그만 실수를 했다고 욕하고, 나없으면 일이 안된다는 식의 교만함은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실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 단체도, 어떠한일도 해내지 못하리라 필자는 못을 박고 싶다.

항시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끝내고 나면 실수가 남게 마련인데, 뒤에 서서 "어험"하는 식의 사고는 글쎄.

또 교포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 욕심이라면 N. S. E. W. 4개로 나누어 4개의 교회만 있었더라면 큰 교회 건물도 구입했을 것이고, 2 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학교운영도 가능했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

아뭏튼 이제는 서로 불신하고 따지고 깨지고, 또 다른 것을 세우고 하는 소꿉장난은 그만두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읍니까?"하는 항변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일축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나다로 이민올지는 모르지만 미리 왔으니까 곧은 길을 닦아 놓아야 되지않나?

우리 모두들 하나로 뭉쳐 아름답고, 따뜻하고, 힘이 넘치는 한인사회를 건설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

BLOOR를 중심으로 큰 코리어 타운이 형성되고, 캐나다 사회에 코리언 파워를 꽉! 못박아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BLOOR거리 영문표지밑에 한글로 거리표시와이름이 쓰일 날을 기약하면서…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한인실업인협회

정부회장 입후보등록공고

회칙 제6장 2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선 거 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오후4시
선거장소 : Holiday Inn Don Vally 1250 Eglinton Ave. East(Wynford Dr에 입구있음)
등록마감 : 1981년11월11일(수요일) 오전12시
등 록 금 : 각 입후보당 $1,000(은행보증수표, 일체반환없음)
후보자격 : 회칙 제2장 4조1항에 의한 정회원
등록구비서류 :
가. 이력서2부(명함판 사진1매씩)
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1부
다. 추천서 1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의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

1981년 10월 9일

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국 영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회 회칙 제3장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1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시 일 : 1981년11월26일(목요일) 하오6시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Wynford Dr. 에 입구있음)
안 건 :
1.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3. 이사회 보고
4. 감사보고
5. 정 부회장및 이사선출
6. 회칙개정
7. 기타안건

1981년10월9일

한인실업인협회장
이 형 인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합니다.

YMCA의 봉사단체인 와이즈 맨즈클럽은 네번째로 갖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아래와같이 교민 여러분을 모시고 갖고저 합니다.
오셔서 성탄의 참뜻을 되새기며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 : 11월21일(토)하오6시 (CASH BAR및 친교)~12시(폐회)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2층(COMMONWEALTH BALLROOM EAST 85 CHESTNUT ST.(시청뒤)
프로 : 크리스마스 메시지(월터·비참), 소음악회(독창 노혜일), 캐롤 부르기 폭댄스(박옥선), 빙고, CHINESE AUCTION, 캐쉬드로, 게임, 댄스등
상품 : TV등 20여점
회비 : $30(단 16일이전 구입시는 $25 좌석제한 200석)
예매 : 회원이나 준비위원(유영갑, 조덕남, 홍사렴, 강대길, 천중환, 이석현, 김창열)이나 YMCA(536—1166)

1981년11월 일

토론토 코리안 와이즈맨즈 알파클럽 회장 차선겸
토론토 코리안 와이즈맨즈 베타클럽 회장 이석현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가게헬퍼 파-타임 구함 (오후5~11시까지)
QUEEN ST. E
☎ : 466-3995 Mr. LEE

성실한 분으로 도너스 샵 매내저를 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2-0634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 : 535-4441 MRS. 김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OAKWOOD & DAVENPORT
☎ : B) 656-3020, R) 960-0761

입주하여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불링톤(불링톤지역 출퇴근가능)
☎ : 665-2866(토론토), 639-2736(불링톤)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 : 244-5248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GAS ATTENDANT구함
☎ 782-6311

오전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 638-2553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입주하셔서 두아이와 살림을 도우실분 구함 :
주 : 210달러 드림
☎ : B) 248-4013, R) 244-0765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맥스 밀크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성실한 캐쉬어 구함.
☎ : 633-5231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및 양도

이윤 좋은 가게 팝니다
(+집)
☎ : 465-4385

성업중인 레스트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그로서리 스토아와 아파트매매 : 그린우드 레이스 트랙에 있음. GOLD YEAR REALTY의 JOHN CHING에게 연락바람 ☎ : 960-4610, 977-6347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썰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 코메스

KNOB HILL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읍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가정형편상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포함
☎ : 656-7753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드라이크리닝 가게세일
세일 $145.000 FOR YEAR,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50.000, 오렌지빌 내에 있음(미시사가에서 30분거리). 38년간 운영된 이익좋은 비즈네스임
몬트리올·트러스트 CO. DAVE LAL(데이브·랄)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비즈네스를 갖고있으니 문의바람
☎ : 275-5555, 276-3229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크로스웨이 꽃집(선물)팝니다
가격 : 17,000달러. 영업시간 짧고
일요일 휴업
☎ : 535-1355

①버라이어티(핀볼17개 포함, 주6일)
②그로서리(주6일)
③FISH & CHIPS(주5일)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나스 샵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왕요함 55 KENSINGTON AVE. To

이주관계로 팝니다. 희망자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STEAK식당,
6일매상 2,000달러(일요일 휴무)
23 HELENE ST. N. MISSI.
☎ : 274-7010 CENTURY BURGUR

사무실 투자 : 롱 리스
액설런트 TERMS
☎ : 675-3744, 249-5442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그로서리와 미트스토아
약 $1000,000, 두 아파트를 포함해서 잘설비되 있음.
최적의 위치 HENRY ZWIERS에게 연락
☎ 705-326-4131
WALTER DEAN REAL ESTATE LTD.,
107 MISSISSAGA ST. E. ORILLIA, ONT.
☎ : 705-325-619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연간 세일 : 백만달러
리자이나 지역에 있음.
토론토연락처 : 624-1289 미스타 정

동양식 레스토랑을 하기위한 좋은기회
L. C. B. O. 라이센스 있음. $300,000이상, 번영하는 MUSKOKA에 있음. 그외 여러 좋은 장소에도 있음.
CLARENCE LABOSSIERE
☎ : 705-326-7468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인 벤 토 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점포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온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본사특약 연재만화 블론디 딘·영 작

미 용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3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열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안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아 십 니 까 ?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OME JEWELLERY 쏘메쎄리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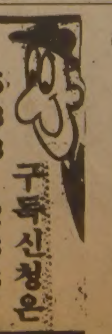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533-2361 구독신청은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各部處 後續人事 착수

財務部·動資部 監査院·專賣廳 局長級이상 34명 斷行

폐지된職位 待機형식 發令

다른部處도 2일까지 매듭

정부는 31일 機構改編에 따른 各部處의 局長級이상 後續人事를 단행, 없어지는 재무부국제금융차관보로있던 朱炳國관리관을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轉任시키는등 3명의 차관보급인사를 포함, 재무부, 동자부, 감사원, 전매청등 4개부처의 국장급(2, 3급)이상 34명을 11월2일字로 轉補 또는 再發令했다。 정부는 노동부를 비롯한 나머지 部·處·廳등 중앙행정기관의 局長級인사를 빠르면 11월2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날 인사가 단행된 재무부, 동자부, 감사원, 전매청의 인사내용을보면 주로 폐지되는 직위에있던 공무원을 본부대기형식으로 발령, 정책연구반요원이나 교관요원, 국방대학원등 교육파견대상자로 선발하는등 최소한의 인사로 폭을 좁혔는데 앞으로 인사를 하게되는 나머지부처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처리, 국장급인사의폭은예상보다줄어들것으로보인다。

인사내용을 분류하면 ▲轉補21▲再發令 4▲轉任1▲교육, 파견등을 위한 본부대기 8명등이고 부처별로는 재무부7, 동자부6, 감사원10, 전매청 11명이다。

이번 정부기구 개편으로 폐지되는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 행정개혁위원회, 국무총리기획조정실소속 1급이상 25명중 총리실 기획조정실장, 재무부국제금융차관보등 6명을 제외한 19명은 31일까지 각각 소관부처에 自進辭表를 제출했다。

高齡副知事 2~3명은 명예退職 內務部

한편 내무부는 기구축소로 자리가 없어지는 7명의 副知事(부시장포함)가운데 정년이 얼마남지않은 2, 3명은 명예퇴직시키고 나머지는 연구관으로 발령, 당분간 知事보좌역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秋穀價 國會同意로 국민당、改正案제출

국민당의 金基洙의원등黨소속의원 25명은 31일 정부가 양곡의 수매가 수매량 放出米價등을 결정할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糧穀管理法中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매매가격은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해야하고 도시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또한 농민을 위한 진정한 이익단체가 없기때문에 국민의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들의의사를 수렴, 국정에 반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教育稅등 내일부터 政策질의

국회는 2일부터 정부가제출한 교육세법안을 비롯한10개稅法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2일 豫決委를 續開, 80년도 決算案과 예비비지출승인의 件을 심의하는한편 內務 商工등 일부常委는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특히 財務委는 오는9일까지 정책질의를 끝내고 稅法小委와 금융관계법小委를 구성할 계획이다。

財務委에 상정된 10개稅法은 ▲租稅감면규제법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특별消費稅法 ▲電話稅法 ▲防衛稅法 ▲國稅기본법 ▲關稅法 ▲教育稅法이다。

이중 교육세법은 民韓 국민당은 물론 與黨인 民正黨도 시설에 반대하여 다른代案을 모색하고 있어 많은 論難이 예상된다。

民韓黨은 정부가 제출한 9개 稅法案중 租稅감면규제법,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특별消費稅法등 6개稅法에 대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民韓黨은 또 教育稅法신설은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을 마련, 정책질의과정서 稅신설반대의 당론을 펼칠예정이다。

한편 국민당은 교육세법안은 폐기시킨다는 원칙을세웠으나 李聖秀교육세법심의小委위원장은 여당측에서 상당부분을 양보할경우 재산稅에만 부가하지않는다면 교육세신설에는 찬성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늦가을」을 거두는 바쁜일손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농가에서는 추수한 벼를 집안에 거두어들이느라 한해농사의 마지막 손길이 바쁘다。 중앙관상대는 상순에 한파가 닥쳐 5일께 中部지방엔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중순에 예년기온을 되찾은뒤 하순부터 한파가 내습하기 시작,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겠다고 내다봤다。

▲7일=입동 ▲22일=소설 ▲30일=수출의날

【경기 高陽郡에서 朴泰弘기자찍음】

波、罷業禁止法案 마련

議會에 제출 채택안되면 戒嚴令선포

【바르샤바30日(外)=聯合】 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겸 공산당제1서기는 폴란드를 계속 마비시키고있는 노조파업으로부터 국민과국가를 보호하기위한 노력의일환으로 30일 의회에 파업금지법안을제출하고 만일 파업금지법안이 채택되지않으면 계엄령선포등 비상조치를 취할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야루젤스키 제1서기는 이날 폴란드 자유노조본부의통제를 벗어난파업이 폴란드곳곳에서 계속되는가운데 소집된 의회에서 연설을통해 정부는 현재 위협스런 상황에 처한 폴란드위기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지모를 반사회적 행동들을 막기위해 파업금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루젤스키 제1서기는 특히 4백40명의 의원들에게 만일 파업이 종식되지않을경우 이파업금지법안을 즉각 승인해달라고 촉구하고 또한 의회가파업금지법안승인에실패할경우 자신은 시민과 국가이익을 위해 내각에 비상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계엄령선포 가능성을 비쳤다。

야루젤스키 제1서기의 이같은 행동은 자유노조가 현재 약25만명의 노동자들이 본부의 통제를 벗어나 곳곳에서 벌이고있는 무분별한 파업을 종식할것을 호소한지 하루만에 나온것이다。

야루젤스키 제1서기는 이날 또한 부분개각을 단행하여 스타니스와프·마드를 부수상직에서 해임하고 군소정당중의 하나인 민주당당수 에드바르트·코발츠크를 부수상에 임명했다。

武器판매 계속協議 黃華、헤이그와會談

【워싱턴31日(外)=聯合】 미국을 방문중인 중공외상 黃華는29일에 이어 30일에도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협의했으나 미국의 對중공 또는 對대만무기판매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채 2일간에 걸친 미행정부고위관리들과의 회담을 모두 끝냈다。

黃華는 헤이그 국무장관과의 제3차회담을 끝낸뒤 기자들에게 이날의 미·중공외상회담에서는『솔직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대만문제를 포함한 양국간의 관계와 국제정세를 협의했으며 미국의 對중공, 對대만무기판매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在日民團 간부등 全대통령이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31일 상오 청와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在日거류민단의 張聰明중앙본부단장과 각급지방조직및 산하단체간부 1백45명에게 다과를 베풀고 환담했다。

精油·금융·建設業등 작년 큰好況

電子·自動車·機械業은 모두 빠져

1百大 高額納稅法人 집계

經濟성장률이 마이너스5.7%를 기록한 지난해 불황속에서도 精油會社와 金融業 및 建設業은 호황속에 많은 돈을 번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무부가 집계한 81년도 1백대 高額納稅法人(80년실적)명단에 따르면 大韓石油公社가 80년중 1조9천6백76억3천3백만원 賣出에 7백9억9백9만원의 소득을 올려 2백83억7천1백만원의 法人稅를 납부함으로써 賣出額·所得및 納稅랭킹모두 1위를 차지했다。

石油公社에이어 商業은행이 3백53억8천3백만원 소득에 1백1억2천7백만원을 납부하여 고액납세자순위 2위를차지했으며 다음은 湖南精油 81억7천만원 文化放送76억1천6백만원 大林産業68억8천8백만원 現代건설 52억2천만원 三煥기업46억8천7백만원 大韓投資금융44억5천5백만원 漢陽투자금융 43억7천4백만원 東洋투자금융 42억6천4백만원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에대해 소득은 油公、商銀에이어 大林産業(3백50억1천8백만원) 湖南精油(2백38억1천6백만원)三煥企業(2백15억4천2백만원) 三扶土建(1백91억6천7백만원) 文化放送(1백90억4천2백만원) 中央投資 大韓投資 漢陽투자의 순으로 되어있다。

業種별로는 油公、湖油、京仁에너지、興國商社、世邦石油등 대부분의 정유및석유판매회사들이 1백대고액 납세자랭킹속에 들어갔으며 金融업사는 은행、단자、보험은 말할것도없고 심지어 서민금고에 이르기까지 무려23개기업이 고액소득및 납세랭킹속에 들어가있다。이밖에 石油化學14、건설회사가12、제약및화장품업4、섬유업이 각각6개사、무역및 운수업이 각각4개사를 차지하고있으며 전자、자동차、기계、중공업등은 불황을반영、고액 소득랭킹에서 모두빠졌다。고액소득을 올린기업이 결국 고액납세자가 되는데 財閥그룹별로는 럭키(4개사) 現代(4개) 大宇(3) 三星(3) 鮮京(3) 錦湖(4)、그리고 韓進·韓一合纖 東亞건설 永豊등이 2개사이상의 고액납세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油公·韓電·大宇實業등上場企業의 公表所得과 納稅를위한 申告소득이 다른것은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때문이다。

◇100大 納稅法人 名單 (單位：百萬원)

順位	法人名	代表者	外形	申告所得	總稅額
1	大韓石油公社	崔鍾賢	1,967,633	70,909	28,371
2	韓國商業銀行	孔德鍾	407,140	35,583	10,127
3	湖南精油	具平會	1,594,609	23,816	8,170
4	文化放送	李振羲	75,684	19,042	7,616
5	大林産業	李埈鎔	507,132	35,018	6,888
6	現代建設	李明博	1,078,025	13,030	5,220
7	三煥企業	崔鍾煥	178,703	21,542	4,687
8	大韓投資金融	朴大振	35,218	14,851	4,455
9	漢陽投資金融	河馥洙	32,752	14,583	4,374
10	東洋投資金融	한석굴	35,365	14,211	4,263
11	서울投資金融	金永德	35,433	13,732	4,119
12	韓國유리	洪大植	56,512	14,149	3,922
13	中央投資金融	김민호	30,436	18,324	3,907
14	三扶土建	趙昌九	137,259	19,167	3,691
15	鮮京	劉碩源	653,035	10,766	3,234
16	金星電線	許準九	112,390	13,433	3,128
17	韓國投資金融	이병준	31,897	14,102	2,982
18	大韓油化	이정호	78,061	6,905	2,740
19	太平洋化學	申東[illegible]	95,490	9,066	2,733
20	大韓重石	韓信	35,680	9,802	2,646
21	第一銀行	李弼善	377,517	9,621	2,582
22	韓國長期信用銀	김봉은	49,166	9,523	2,313
23	第一投資金融	임석춘	28,995	7,691	2,306
24	韓逸開發	趙重建	169,998	13,418	2,305
25	東亞建設産業	林元洙	486,781	43,185	2,261
26	極東建設	金明根	139,977	18,174	2,224
27	서울信託銀行	金龍震	256,623	7,541	2,134
28	建設共濟組合	정석윤	8,165	5,227	2,090
29	湖南化學	姜起千	62,706	5,437	1,852
30	韓國飲料	이동열	8,821	5,294	1,833
31	피어리스	趙重敏	18,239	4,105	1,641
32	韓國카프로락탐	유병봉	53,858	5,709	1,631
33	漢星	김두찬	32,293	3,927	1,568
34	三星物産	景周鉉	924,703	5,109	1,545
35	韓國肥料工業	권순영	61,608	5,103	1,530
36	大宇重工業	尹永錫	156,101	9,548	1,472
37	쌍방울	李奉喆	54,715	3,658	1,460
38	韓一銀行	安永模	387,077	6,729	1,438
39	泰光産業	이기화	85,279	4,191	1,433
40	大韓通運	金南河	96,982	4,585	1,422
41	韓一合成섬유	金翰壽	259,010	4,641	1,412
42	韓國鑑定院	안종직	10,637	3,503	1,400
43	大成産業	金壽根	129,496	3,980	1,392
44	韓進	김형배	44,601	4,906	1,387
45	라이프住宅開發	趙乃壁	95,682	3,959	1,344
46	東西食品	趙必濟	36,939	3,890	1,326
47	京仁에너지	金鍾喜	341,354	3,395	1,310
48	柳韓洋行	박춘건	31,363	4,130	1,309
49	興國商社	李鍾燮	210,469	3,198	1,287
50	光州高速	朴定求	28,989	4,726	1,283
51	韓佛綜合金融	이해명	18,168	5,492	1,273
52	韓一시멘트	김영주	58,485	4,089	1,226
53	아세아商船	조백제	107,860	13,406	1,179
54	國際商事	曺東煥	470,398	3,892	1,172
55	錦海化學	崔世[illegible]	50,475	2,916	1,165
56	韓國綜合金融	윤학수	3,892	5,771	1,161
57	東大門綜合市場	정시봉	3,118	2,879	1,153
58	韓國IBM	WK스티븐스	22,432	8,250	1,150
59	高麗化學	鄭相永	26,131	2,782	1,093
60	東洋鐵管	이선일	25,957	3,619	1,085
61	金星通信	具斗會	65,664	4,335	1,072
62	東亞日報社	李東旭	28,399	2,659	1,063
63	三養食品工業	全仲潤	99,151	3,029	1,059
64	三和페인트工業	윤희중	9,792	3,014	1,054
65	東亞製藥	姜信浩	50,954	3,481	1,050
66	栗山建設	申善浩	66	163	1,013
67	三陽타이어	朴祥求	151,821	3,389	1,012
68	東海投資金融	金洹	10,336	3,374	1,011
69	第一毛織	李洙彬	81,705	3,556	1,005
70	興亞工業	최기욱	28,345	2,502	1,000
71	新羅交易	박준형	17,829	3,327	997
72	韓信工營	이순우	140,597	4,423	996
73	韓國화이자	김중배	11,942	2,413	964
74	釜山投資金融	박창길	10,213	3,148	943
75	國際綜合金融	박영욱	14,540	4,684	937
76	東一고무벨트	김도근	15,659	2,590	924
77	朝興銀行	林在[illegible]	304,697	3,349	904
78	製鐵化學	김창웅	17,768	2,300	895
79	해태製菓	申正次	118,008	2,988	893
80	서울味元	林哲洙	84,028	3,231	891
81	永豊鑛業	최창진	19,683	2,941	881
82	우성實業	한윤언	1,518	1,389	869
83	새한綜合金融	한완수	12,818	4,331	866
84	鍾根堂	정세진	30,076	2,836	865
85	韓國化粧品工業	임광정	29,080	2,849	854
86	星信洋灰工業	金昌洙	45,862	2,111	829
87	韓國東工業	金榮俊	113,593	73,729	808
88	第一信用金庫	유동천	4,125	2,309	807
89	韓國鋪裝建設	양봉웅	26,090	1,994	796
90	東國貿易	白英基	145,847	2,656	796
91	럭키開發	홍성언	82,903	2,177	791
92	永豊	이우룡	39,572	2,371	783
93	新世界百貨店	손영희	31,802	1,956	781
94	韓國建業	김희용	52,925	1,316	776
95	鮮京合織	정찬구	140,308	2,569	769
96	京畿投資金融	박승구	5,269	1,908	762
97	光州投資金融	이국열	8,541	2,489	746
98	亞細亞종합금융	고태진	12,014	3,646	729
99	世邦石油	이영주	123,094	1,822	728
100	韓國農藥	정기영	48,100	2,425	727

商工次官 琴震鎬씨 總理비서실장 趙英吉씨

정부는 31일 공석중인 상공차관에 琴震鎬총리비서실장을, 총리비서실장에 趙英吉교통부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각각 임명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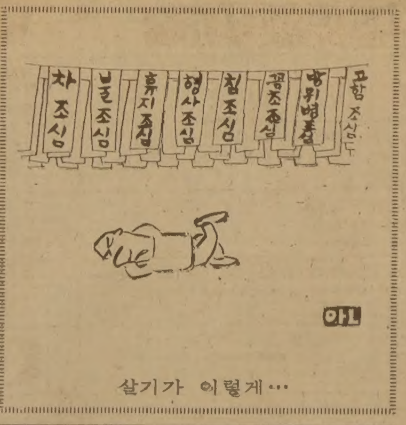
◇琴차관略歷 ▲慶北榮州출신·49세 ▲서울大法大卒 ▲총무처행정관리국장 ▲상공부섬유공업국장 ▲동자부석탄국장 ▲상공부기획관리실장 ▲國保委상공자원분과위원장 ▲국무총리비서실장

◇趙실장略歷 ▲慶北大邱출신·48세 ▲海士9期 ▲駐日대사관武官 ▲해군본부비서실장 ▲國保委 보사분과위원장 ▲立法회의의원 ▲해군소장예편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

民正 總長보좌역 李鍾律씨를 發令

民正黨은 31일 공석중인 사무총장보좌역에 李鍾律부대변인을 겸임 발령했다。

社會漫評



地平線

『내가 도와주마, 내가 발들어 주마/…아무쪼록 내가 들어주고, 붙어주마』—신들린 무당은 길길이 뛰뛰듯춤추면서 왼다。 죽은 조상의 넋이 무당에 내려서, 무당의 입을 빌어 자손에게 약속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집안이 평안하고 자손이 만당하고/부자되게』 도와주고, 『명도 주고 복도 주고/부자되게』 도와주는 조상의 약속을 듣고 다리 뻗고 자게마련이다。▼이 험난한 인생길을 헤쳐가기 위해 약한 인간은 조상의 넋에 의지해야만 되는것이다。 굿이란 약한 인간이 조상과 귀신에 의지하기위해 올리는 절차다。『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무당들은 굿판에서 원다。 돈을 들여 귀신을 공경하면 무당의 입을빌어 부귀와 오래 살도록 명을 주기도 하는게『욕심많은귀신』이라고 한다。 굿이란 그래서 필요한것이다。▼귀신을 부리기위해 올리는 무당굿은 그러니까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의식이요, 종합예술이다。 신을 부르기위해 강렬한 리듬의 음악이 있고, 화려한 神옷을 걸친 무당은 신이 지펴 하늘로 치솟는 뜀춤을 추게된다。 무당이 손에 쥔 神칼과 방울과 거울은 몇천년에 걸친 역사의 산물이다。 죽음의 공포와, 부자가 되겠다는 꿈과함께 무당은 존재했던 것이다。▼이땅의 무당이 시베리아의 샤먼과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베리아의 샤먼들은 귀신과 접촉하기위해 마리화나와 비슷한 환각제를 쓴다。 사회학자 막스·베버는 음악도 [illegible]는 환각제비슷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무당들이 강렬한 음악과함께 신이 지피게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그러니까 현대 서양사회의 청소년들이 환각제를피우는것도 무당이 신이 지피는 상태와같은 것이라고 할수있다。 길길이 뛰춤을 추는 무당굿이나, 뉴욕의 그리니치·빌리지 골목길에서 환각제에 취해있는 청소년이나 똑기는 비슷한 것이다。 불만한 세상사에서 벗어나 하늘을 날고싶다는 욕구다。 다만 우리의 무당굿에는 환각제가 아니라 오랜 전통 민속예술이 있다는게 다를 뿐이다。▼그런뜻에서 우리의 巫俗은 인간의 기본욕구에 바탕을 두고, 또한 게다가 오랜 문화적전통이 혼합돼서 이루어진 표현양식이다。 그러나 환각제나 마찬가지로 이 과학·기술의 시대에 굿은「문화재」이상의 사회적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밑바닥에 깔린 下層문화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전통」은 아닌만큼 巫俗에 관한 학술적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데에 새로운 기대를 걸어본다。

구독신청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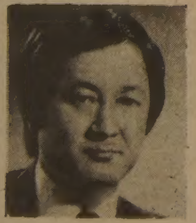
토론토 순복음교회
바자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있는 가을을 맞이하여 본교회에 여전도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바자를 준비했사오니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오셔서 흐뭇한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품　　목：의류부, 식품부, 화초부, X-MAS선물용, 악세사리, 성화, 기타.
메　뉴：떡국, 우동, 만두, 녹두지짐
복권추첨：여러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일　　시：1981년11월14일(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장　　소：순복음토론토교회 친교실
주　　소：1 King St. Weston, Ont.
전　　화：881－7162
　　　　　821－1326

토론토 순복음교회
여전도회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 금주의 새 리스팅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봉 학 농 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시내
전역에 직접 배달합니다.
(3 BOX이상주문)

※배추, 무, 파, 갓,
다꾸왕(왜무), 총각무등

☎：1－775－6256
　　252－1570
(아침9시이전, 저녁7시이후)

아침에

公人과 人間的사정

「죽음」은「삶의 끝」이 아니다

지난 28일저녁 空間詩朗讀會를 마친 후 초청시인들과 소주잔을 나누고 밤 11시 가까이 돼서야 집으로 향했다.

그래서 내가 간신히 얻어 탄 택시가 광화문 네거리를 돌자 운전기사가 『여의도 쪽으로 가는 손님이 있으면 합승을 시켜도 괜찮을까요?』

하길래 쾌락을해서 내 앞자리 즉 운전기사 옆자리에 오른 것이 묘령의 아가씨였다. 차안이 그리 밝지않고 또 뒤에 앉아있는지라 그 아가씨의 인상이나 표정을 알길이 없었지만 차가 달린지얼마 안되어 그 아가씨는 돌연 한숨과 울음섞인 목소리로

『아저씨! 어린 것들을 놓고 죽으면 저승에 가서도 죄 받겠지요?』

하고 누구에겐지도 모르게 물었다. 그러나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않았다 해도 앞자리에서 하는 말이니 내가 나설바도 아닌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간격은 떠서지만 운전기사(한 50은 되어보였다)가

『죽다니요? 누가? 남편이요?』

하고 말을 헛디뎠다.

『제가요! 저는 꼭 죽어야 해요. 그런데 어린 것들이 자꾸 걸려요』

『어린 애들은 몇살인데?』

『네살과 두살요. 그것들을 먼저 죽이자니 차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죠. 살구봐야죠. 또 살면 살아져요』

그녀의 극한적인 심경에 위로야 될지 말지지만 진정과 인생경험이 담겨있어 나는 뒷자리에서 감탄하고 있었다.

차가 마포〈가든 호텔〉앞엘 오자 그녀는 흐느끼면서 내렸는데 나도 袖手傍觀만은 할수 없다는 느낌에서 돈을 치르는 그녀에게

『아가씨! 아가씨 말대로 어린 것을 놓고 죽으면 저승에 가서도 큰 죄 받아요!』

하고 그녀의 말을 되뇌면서 『인간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상』 어쩌면 저 아가씨는 무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차는 밤의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한참동안의 침묵을 깨고 기사는

『그 대학총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의 부부자살때문에 툭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살소동을 벌인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하고 독백반의 말을 건넸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터이라

『글쎄 말입니다』

하고 허만 찼을 뿐이었다.

실상 朴喜範교수 부부의 죽음을 놓고 세상은 안락사냐? 동반자살이냐? 안락사나 자살은 옳으냐? 그르냐? 로 온통 떠들썩 했고 심지어 잡지들마저 『인간에게 편안하게 죽을 권리는 없는가』라는 좌담회까지 열어 널리 그 문제의식을 파헤쳐 보기에 까지 이르렀었다.

그런데 대체적인 논평이나 문제의식의 결론으로서 제시된것을 요약하면『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바나 동정할바가 많으나 사회적으로 볼때 그러한 생명의 輕視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골자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저러한 微溫的결론에 대해서 아주 불만일 뿐 아니라 저러한 불투명하고 불철저한 결론이 일반적으로 通念化되고 만것에 큰우려를 가지며, 현재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自害사건들이 저 운전기사의 말대로 그러한 영향의 연쇄적반응으로 보는것이다.

나의 理路를 어느 잡지의 좌담회에서도 단편적으로 떠기는 하였지만 여기서 좀더 분명하게 밝힌다면 먼저 인간존재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단순한 생물적 존재가 아니라 靈性을 지닌 불멸하는 존재라는것에 모든사람이 명확한 認知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죽음은 삶의 종식이 아니요, 죽음은 삶의 고통의 피신처가 될 수 없고 더구나 죽음의 安息은 그저 한부로 얻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저 택시에 합승했던 삶의 고통의 절정에 서있는 여인의 한가닥 양심의 가책이 가르치는바 처럼 죄를 짓고 죽으면 죽은 후에도 그 罪苦속에 놓이게 마련인 것이다.

가령 인간존재가 단순한 생물적인 것이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朴교수의 부부처럼 그렇듯 확연해진 고통만의 삶을 한시라도일찍 끝내는 것이 현명할 뿐 아니라 그들부부의 행동을 어찌보면 殉愛譜로도 여겨질 것이다. 아니 어찌 그들 뿐이랴! 신혼한 남편의 죽음을 따라 호텔에서투신자살한 미망인도, 실연끝에, 생활고끝에 자살한 사람들도 과도한 佛事를하다가 빚에 몰려 自害에 나아간 비구니들도 잘못이라기 보다 오히려 그 용기와 결단이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나 거듭 말하거니와 죽음은 결코 인간존재의 종식이아니요, 오직 한과정일 뿐으로서 더구나 그 삶이 그 죽은 후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조건과 상황을 죽음으로써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육신적, 정신적 고통이나 그 극한속에도 自害에 나아가서는 안되며 심지어 沒人格的상태라고 할수 있는 植物人間상태라해도 당자로서는 물론 그 가족들도 이 物理態이 지니고 있는 그 神靈性에 순종해야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한가지 더 擧論해야 할것은 바로 저러한 自害행위들을 놓고 흔히들 입담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고 동정한다』

는 소위〈휴머니즘〉적인 입장인데 오늘 날 이 『인간적』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묵인되고 방치되고 타협되고 동정되고 엄호되고 발호하고 있는 것일까?

비근한 예를 하나들면 公用族과 社用族이 소위 「사바사바」술좌석이 제법 어울려 野合에 이르는 첫신호가 무엇인고하니

『우리 이제부터 한번 인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는것이다.

마치 인간이란 명목속에서 선악의 가치판단이 분간되지않고 道德律이나 그當爲의식이 파괴되고 마비되는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악의 의지나 그 행위를 거부도 부정도 못하는 해괴한 휴머니즘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선악의 혼동과 倒置상태를 일찌기 저〈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명작 『죄와벌』에서 파헤쳐 놓고있다.

즉『주인공〈라스콜리니코프〉는 더 많은 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害蟲이라고 여겨지는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도끼로 쳐죽여도 괜찮다는 논리에서 이를 결행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연양심의 가책과 창녀〈소냐〉가 불우속에서도 세상과 남을 저주하지않고 자기희생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 감동되어 마침내 자수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입담는 휴머니즘은 결국 인간의 무력과 약함과 병폐와 파탄을 그야말로 인간적 눈과 그 자(尺)로만 재서 이를 변호하고 비호하고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朴교수 부부의 동반자살은 美化가 되며, 또 그외에 모든 自害행위도 불가피한 것이고, 오히려 그 용기와 결단은 가치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휴머니티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중심적 휴머니즘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선악의 가치판단을 혼미케하고 마비상태를 초래한다.

그래서 20세기의 敎父的 철학자라 불리는〈자크·마리탱〉은 오늘의 인간중심적 휴머니즘이 充足的 휴머니즘 즉 神중심적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야한다고갈파하는것이다.

具常 〈詩人〉

"蘇、SS20 상당수廢棄용의 對美 군축협상서 表明할듯"

슈미트首相 전망

【본30日聯合=聯合】 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은 소련이 오는11월 제네바 미·소군축협상에서 SS20 다탄두중거리 핵미사일의 상당수를 폐기할 용의를 표명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서독을 방문중인 미국신문편집인들이 30일 전했다.

이들은 슈미트수상이 지난 29일 자신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소군축협상이 열리게 되면『소련은 상당수의 SS20미사일의 폐기문제를 신중히 검토할것』이라고 말하고 서독으로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미국의 새중거리미사일 서유럽배치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소련이 모든 SS20미사일을 철수하는 「무의 선택(제로·옵션)」이 이번 협상에서 이뤄지길 바라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泰 쿠데타陰謀說

首都警備隊 비상경계령

【방콕30日聯合=聯合】 타이 당국은 상무성및 방콕시청 출입구에서 폭탄폭발사건이 발생한지 이틀만인 29일 밤 젊은 군지휘관들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풍문이 방콕시내에 퍼진것과 때를 같이해 약1천명의 수도경비대와 경찰에 무기한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비롯한 방콕의 일부 지역에 탱크를배치하는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지난4월의 불발쿠데타진압에 핵심역할을 담당했던아르티트·칸랑·에크 육군참모차장은 이같은 경계령이 국내안보를 위한 통상조처라고 말했으나 정통한 軍소식통들은 방콕시내 곳곳에 임시검문소가 세워져 검문검색이 실시되고있다고 전했다.

방콕 주재외교관들은 군및 경찰에대한 비상경계령과 탱크의 배치가 군부내의 반대파에대한 불신임을 표시하기 위한것과 연관이 있는듯하다고 추측했다.

사우디、中東평화 主導조짐

PLO·美서支持…이스라엘은 反對

무바라크도 아랍國巡訪밝혀

【베이루트30日AP=聯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야세르·아라파트의장은 최근 파하드 사우디아라비아 皇太子가 제의한 8개항 中東平和계획이 아랍·이스라엘共存체제에 긍정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30일 이를 찬양했다.

아라파트의장은 蘇聯과 極東지역여행을 마치고 처음으로 가진 베이루트의 중립지안·나하르紙와의 회견에서 中東문제전반에 관해 언급하면서 또 이스라엘은 계획대로 내년4월25일까지 점령지 시나이반도로부터 군대를 완전 철수하지 않을것이며 그렇게될 경우 이집트·이스라엘평화조약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하드황태자는 지난8월8일 이스라엘이 점령지로부터 완전히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국가창설을인정하는대신 아랍국가들도 이스라엘國을 인정한다는 8개항의 中東평화안을 제시했다.

아라파트의장은 사우디가 처음으로 아랍·이스라엘간의 평화공존을 제의, 中東지역 모든국가들의 共存權을 인정했다고 말하고 파하드황태자가 오는11월25~27일 3일간 모로코의 페즈에서 열릴 아랍정상회담에 이 평화안을 제출할경우 이 계획은 토의될 것이며 자신은 설사 이계획의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파하드황태자가 반대할것으로는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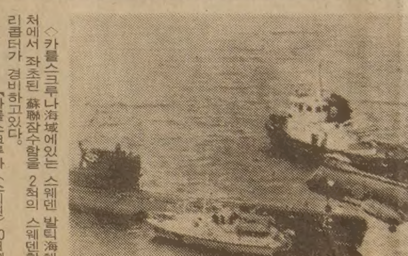
【카이로30日UPI=聯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30일 적절한 시기에 이집트의 중동평화정책을 설명하고 아랍국들과의 이견을 해소하기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여타아랍국들을 방문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또 카이로의 주간『10月』誌의 편집인인 아니스·만수르 씨와 가진회견에서 故사다트 대통령의 암살을 『외세가 배후조종』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되기 수개월전 자신의 對이스라엘평화정책을 설명하기위해 사우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같은 생각에 찬동하느냐는 질문에『매우 좋은 건전한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텔아비브30日UPI=聯合】 이츠하크·샤미르 이스라엘 外相은 30일 美國이 사우디아라비아의 中東평화안을 지지하는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존립을 『불가능케할』 사우디 평화안을 결코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미르 外相은 이날TV회견을 통해 그같이말하고 사우디 평화안은 아랍연맹과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취해진 가장 극단적인 결정을 취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를스크루나海域에있는 스웨덴 발틱海해군기지근처에서 좌초된 蘇聯잠수함을 2척의 스웨덴함정과 헬리콥터가 경비하고있다.【카를스크루나(스웨덴) 30日UPI=聯合】

"坐礁경위 밝히겠다"

蘇외교관 立會조건 艦長 심문同意

스웨덴 蘇潛艦사건

【스톡홀름30日로이터UPI=聯合】 스웨덴당국의 하선요구에 불응하며 수일째 스웨덴당국과 신경전을 벌이고있는 좌초된 소련잠수함 137호 함장은 30일『소련외교관들의 입회하에』사고경위를 밝힐것에 동의했다고 스웨덴국방성이 밝혔다.

국방성대변인은 소련잠수함장 피요트르·구진대령이 이날 스웨덴해군전문가들과의 회담에서 스웨덴당국에 의한 심문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련외교관들의 입회하에서만 심문에 응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구진함장의 이같은 심문동의표명에따라 2명의 스웨덴주재소련외교관들이 이날 스톡홀름을 떠나 사고현장인 카를스크루나 기지에 도착했다.

空輸部隊·제트機등 蘇潛艦부근에 배치

【카를스크루나(스웨덴)31日UPI=聯合】 스웨덴은 카를스크루나 해군기지 부근에서 좌초된 蘇聯잠수함을 빼돌리려는 蘇聯의 어떠한 기도에도 대응할수 있도록 공수부대병력과 제트기·어뢰정등을 현장부근에 배치시켰다고 스웨덴국방성대변인이 31일 밝혔다.

대변인은 蘇聯이 外交官2명을 사고현장에 파견한것과 때를 같이해 또다른 잠수함1척과 구축함2척을 사고해역밖에 대기시켜놓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스웨덴도 병력들을 동원, 사고해역을 감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英國領 앤티카 오늘기해 獨立

【세인트존즈(앤티가)31日聯合=聯合】 카리브해의 조그만 섬나라 영령앤티가가 11월1일을기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3개도서로 이루어진 앤티가는 총면적 4백40평방km로 영국이 국방과 외교분야의책임을 맡은채 지난67년이래 자치형태를 취해왔었다.

총인구7만5천명중 거의 대부분인 7만3천명이 앤티가에 살고있으며 주민의 대다수가 아프리카노예의 후예들로 나머지는 영국·포르투갈·레바논·시리아系이다.

蘇潛艦승무원억류 美의원瑞典에促求

【워싱턴30日聯合=聯合】 롬·랜토스 美하원의원은 30일 스웨덴정부에 대해 蘇聯당국이 2차대전중 수천명의 유태인들을 나치의 학살로부터 구출하고 실종된 스웨덴외교관 라울·발렌베르그씨를 석방할때까지 스웨덴해안에 좌초된 蘇聯잠수함 승무원들을 억류하라고 촉구했다.

사우디、原油減産결정 하루 8백50만배럴로

【제네바30日聯合·AP=聯合】 세계최대의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1월1일부터 원유생산량을 하루 9백50만배럴에서 8백50만배럴로 감축할것이라고 아메드·자키·야마니 사우디석유상이 30일 밝혔다.

야마니석유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사우디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중 어느나라도 새유가동결체제를 깨뜨리거나 세계석유수요가 과열될 경우에는 즉각 원유증산에 나서는한편 만약 세계석유수요가 침체하거나 34달러선의 새유가체제유지에 필요하다면 추가감산을 단행하는등 지렛대역할을 언제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시나이 多國平和軍 이탈리아 參與결정

【로마30日AP=聯合】 이탈리아정부는 30일 캠프데이비드협정에 따른 이스라엘군철수후의 시나이반도를 감시할목적으로 파견될 다국적평화유지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서관前妻 증언에 목덜미잡힌 다나까

5년끈「록히드受賂사건」새局面에

【東京30日＝宋孝彬특파원】 다나까(田中) 전수상의 비서관 에노모또(榎本敏夫·55)전부인의 록히드사건과 관련한 재판정증언은 일본국내에 큰파문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다나까전수상이 5억엔을 수회했느냐 안했느냐의 이른바 『록히드사건』 재판은 별 진전없이 5년동안끌어왔다. 그러나 지난 28일동경지방법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미에꼬(三惠子·33)씨의 증언은 다나까전수상측이 더이상 발뺌할수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능력을 갖추어 다나까의 유죄판결에 한발 다가서게 했다.

한편 비록 이혼한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전남편의 비위 사실을 재판정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고발하는것은 인륜상의 문제가 있지않느냐하는 논란이 일어났다. 미에꼬씨는 66년12월 다나까전수상의 비서관인 에노모또와 결혼, 에노모또의 두번째부인이 됐으며 록히드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77년말 합의이혼했다.

◇다나까전수상의 유죄를 한발 앞당기게한 미에꼬씨、이혼전의 모습이다。

"남편 문제의5億엔 처리苦心 중요관계書類 내가불태웠다"

權力에 항거·人倫위배…讚辭·비난 엇갈려

미에꼬씨는 재판정에서 76년2월10일 자신이 운전하는 차속에서 다나까수상집으로 가던도중 에노모또가『5억엔문제를 어떻게하면 좋으냐』고 물어왔으며 근심하는 남편에게『없는것으로 하는것이 비서로서의 역할』이라고 격려했고 당시·집안에 있던 5억엔에 관련된 메모와 증거서류일체를 자신이 불태웠다고 증언했다.

미에꼬씨의 증언에대해 시민들은 권력에 굴하지 않은 한여성의 『용기』로 받아들여 격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오꾸노(奧野) 법상을 비롯한 자민당의원들은 비록 이혼하여 헤어졌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이루어졌던 규방의 비밀과 함께 사회적범죄를 법정에 고발하는것은 인륜도덕에 어긋나는일이 아니냐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벌은 한번 쏘면 죽습니다. 나도 이런 각오로 증언대에 섰읍니다』라고 말한 미에꼬씨는 다나까수상과 관련된 5억엔 수회사건에대해 증언하게된 동기를 이혼의 수습단계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지않은 사감과 권력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해야한다는 사회적 정의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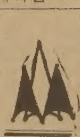
外信알레이

◆스페인下院 나토加入案가결＝스페인하원은 29일 스페인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신청안을 1백86對1백46으로 가결했다. 사회당·공산당등 좌익세력의 강경한 반대에도불구하고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NATO가입신청안은 다음달 16일 상원표결에 붙여지는데 관측통들은 상원표결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마드리드＝AP】

◆美人權次官補에에이브럼즈＝레이건 미 대통령은 공석으로 있던 국무성인권담당차관보직에 엘리어트·에이브럼즈 국무차관보를 지명할것이라고 美행정부의 한고위관리가 29일 전했다.【워싱턴＝UPI】

◆埃 回敎과격파34명추가逮捕＝이집트경찰은 29일과 30일 34명의 회교과격파들을 추가로 체포, 사다트 대통령 암살된이후 당국에 체포된 회교과격파들은 모두 5백87명으로 늘어났다고 카이로의 보안당국소식통들이 밝혔다.【카이로＝聯】

◆美·요르단 내주 頂上會談＝레이건 미 대통령은 요르단의 중동평화협상 참여를 고무하고 소련의 대요르단무기판매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주초 워싱턴에서 후세인 요르단왕과 정상회담을 개최, 미신형무기를 요르단에 공급하는문제를 토의할것이라고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30일 밝혔다.【워싱턴＝AP】



高大生1명 구속 學生示威선동혐의

서울城北경찰서는 31일 高麗大 법학과4년 趙錫賢군(22)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趙군은 지난 29일 낮12시50분께 3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도서관앞에서 반파쇼투쟁 선언이란 유인물을 뿌리며 반정부구호를 외쳤다는 것이다.

메아리

張勳의 은퇴

안타제조기 張勳선수의 입지전적「야구인생」을 만들어낸것은 그의 어머니와 모국애, 그리고 불같은 鬪魂이었다. 그는 어렸을때 어머님이 하느님같았다고 고백한다.

『나의 인생행로에 어머님이 작용한것이 다행이었다. 어머니 홀로 그 가냘픈 손으로 우리 형제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대한 동정이 어머니를 도와야한다는 감정으로 비약했다. 고생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던만큼 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절대적이었다』고 일본 월간지와의 대담에서 술회했다.

張勳은 모진 가난과멸시속에서자라났다. 방망이 하나로 가난을 물리쳤다. 일본인들의 경멸엔 안타로 응수하며 싸워이겼다. 그의 鬪魂을그 스스로가 「헝그리 정신」이라고 표현한다. 「사내가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어머니의 격려가 가슴 벅차게 아로 새겨졌다.

그가 일본프로야구에 발을 내디던것은 1959년-. 그전해에 처음 모국을 찾았다. 한국일보사가 초청한 재일동포학생야구단에 선발 되었다. 김포공항에 내려 아리랑과 도라지의 선율을 들으며 모국에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이 조국이구나…」하는 느낌이 치밀어 오른 순간 그의 인생은 모국과 하나로 단단히 묶여졌다. 끈질긴 일본귀화의 권유를 뿌리칠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끝내 한국인으로 남아 현역에서 어제 은퇴했다.

올해로 41살-. 현재 일본 프로야구 최고령선수로 23년간의 화려한 야구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기록의 사나이로 통하는 張勳의 위업은 일본프로야구에서 오래 간직 될것이다.

일곱번의 수위타자의 영예와 지난해 이룩한 통산3천안타의 대기록은 당분간 아무도 감히 쳐다 볼수 없다고 본다. 이기록은 巨人팀에서 거의 밀려나다시피 롯데로 이적한 후의 쾌거로 더욱 감격스러웠다. 「3천안타」만으로도 그는 일본야구의 영웅으로 기억될것이 틀림없다.

그의 전성기 타력은 화산의 분화구처럼 폭발적인 巧打였다. 이제 공포의 타봉은 그라운드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 그가 세운 영광의 金字塔엔 재일동포의 애환과 승전보가 함께 새겨져 있다. 명예로운 한국인 張勳을 모국은 두고두고 잊지 않을것이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 ~ 새벽2시 까지
토. 일 : 2 : 00PM ~ 2 : 00AM
(금. 토. 일 ─ 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 ~ 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 ~ 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 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

새로운「市民돕기運動」

86년까지 自助能力개발 住民에 運營權 맡기기로

서울冠岳區新林7洞에「종합복지관」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복지시설이 11월께 생긴다。단순한 친목단체나 구호기관이 아니다。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비롯해서 교육、직업훈련、가정상담、탁아소운영등「사회복지형」사업을 펴게 되는곳이다。주관하는 사람은 聖心중앙유지재단(이사장 尹德善)。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일을 민간단체가 과감하게 떠맡은 획기적인 시민돕기운동이다。모든 재정문제를 재단의 힘만으로 해결한다는 이 의욕적인 사업이 결과적으로 영세민들의 자조능력개발에 큰 효과를 얻게되기를 바라는사람이 많은뜻깊은「출발」이기도하다。

「綜合福祉館」생긴다

서울新林7洞 영세민위해

「聖心중앙유지財團」서 20일께

診療·직업훈련·託兒所도 모두 無料원칙 능력있으면 誠意껏

31일 성심중앙유지재단의 무원장 宋浩星박사는 동재단이 오는20일께 서울의 대표적 도시영세민지역인 서울冠岳區新林7洞(난곡)내35개통 2천2백95세대 1만1천27명의 의료및 사회복지사업을위해「新林사회복지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복지관 운영을 위해 재단측은 건물임대등 기본시설을 이미 마련했고 운영조직、세대별카드 작성등을끝냈다. 이복지시설은 앞으로 5년간 재단측에의해운영되며 이동안 주민자체조직을 양성、재단측이 철수한이후 그중의료보험조직을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수있는 수준까지 유도해간다는 것이다.

재단측은 이를위해 필요한 경비를 모두 책임질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宋박사에 의하면 이복지관 사업은 의료사업과 기타사회복지사업을 병행하게되는데 의료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진료를 통해 치료가가능한 환자에대해서는 적극적인진료를 전개하고 1차진료결과 입원이필요하거나 응급환자는 즉시2차진료를할수있는 재단산하 聖心병원(漢江聖心병원、江南聖心병원등)에 이송한다는 것이다.

그밖의 질환은 복지관의부속시설인 진료실에서 치료하게되며 복지관 진료실은▲월요일 내과(일반및 응급환자 대상)▲화요일 내과(만성질환자)▲수요일 정신과(심신장애자)▲목요일 피부과및 외과(나환자)▲금요일 내과및 소아과(일반환자)순으로 진료를 맡게되며 또 이복지관소속 보건간호원이 가정방문에서 진료의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재단측에 의하면 진료비는 원칙으로 무료로하되 불가피하게 징수할경우 초진권 3백원, 재진권 1백원、1일분 약값 1백원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며、이같은 비용도 복지관 운영에 충당하는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5년간으로 예정한 이계획이 완료되는 86년께 주민자체조직 운영기금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약값의 경우 월8만원이하 수입세대에 대해서는 무료이며 입원을요하는 환자의경우에는 복지관의 판단에 따라 환자본인이 지불할수있는 능력을갖춘 경우에는 능력한도내에서는 치료비를 부담토록했으며 경제무능력자는 최하의 입원비라도 성의껏 지불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복지관에는 또약국을개설, 응급환자에 대한 처방과투약은 물론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대기하면서 보건간호원과 협의、2차진료기관으로 이송토록할 방침。

이밖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조직을 위한 교육및 조사활동 ▲주민조직사업 ▲가정지상담 ▲가정방문 ▲탁아소운영 ▲2차진료대상환자를 위한 사회진단 ▲재해응급구호사업 ▲환경위생에 대한 홍보활동 ▲직업훈련및 교육활동을 맡게된다.

또 보건간호원은 ▲모성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가족계획 계몽및교육 ▲만성질환자관리 ▲전염병예방업무등 보건사업을 맡는다.

재단측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관계자들은 복지사업이란 그성격상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돼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한특정분야에만치우쳐 당초에목적을 이루지못한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新林사회복지관은 교육받은의사와 사회사업가등으로 종합적인 지역사회 조직을통해 추진하는것인만큼 기대가크다고 평가하고있다.

또 이복지관은 일방적 자선사업이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민 자체조직을통해 주민스스로 복지시설과 2종의료보험조직을 운영토록한다는 것이라는데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재단측은 오는14일 漢江聖心병원 강당에서 복지관운영및 도시영세민에대한 세미나를 개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로했다. 【鄭英鎬기자】

◇宋浩星박사는「新林사회복지관」의 가장 중요한의의는『주민자체조직을 통해 주민스스로가 자신의 복지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새局面맞은「女大生피살」

—警察 朴尙恩양사건 搜査本部 市警으로 바꿔

"목격자·齒痕이 결정적 證據"주장

지휘책임자格上 정책적 결정底意

상경여대생 朴尙恩양(21) 피살사건수사는 발생 44일만에 다시 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朴양의 친구 J군을「범인」으로 단정했다가 지휘검찰에 의해 영장신청이 제지당했던 경찰이 수사본부를 江南경찰서에서 서울시경본부으로 바꾸어 지휘검찰의「격상」을 불가피하게한데다가 다른용의자에대한 수사는 하지않은채 계속J군을 물고 늘어져 새로운 목격자와 결정적증거라는「주장」과 함께 치흔을 새로운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단의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않는한 서울지검 본청은「경찰의 전진」을 더이상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인가라는 실체의 진실은 검찰과 경찰이 밀고 당긴다고해서 규명되는 것은 아닐수도 있어 이「사건」은 계속 불투명한 그림자를 끌고 다닐것같다.

경찰은▲朴양의 오른쪽 빵에서 발견된치흔이 J군의것이 확실하고▲치흔은 10여분만지나면 피부활동으로 다시 없어지는데 그대로 남아있는점으로 미루어 이치흔은 朴양이 숨지기 10여분전에 생긴것이확실한것이어서 J군에 대한 범행물증이 될수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증거의 거증능력을 인정하는 법조계인사들도 적지 않은형편。

또▲J군이 지난달 21일의 일기를 미리썼고▲사건당일인 지난달18일 하오9시30분께 朴양등을 三井莊여관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운전사 崔世榮씨(35)의 진술▲그다음날 J군이 목 생으로 보이는 여자와함께 범행장소에 나타났었다는 목격자 姜모씨(35·여)의 진술등이 추가돼 J군이 범인이라는 주장을 펴 밝힌다는 주장이다。

또 경찰은 J군이 범행후 집으로 돌아갈때『○○야 같이 가』라고 尙恩양이 부르는 것 같았다는 자백등 모두 19가지를 내세워 J군이 범인임을 입증하기위해안간힘을써왔다。

그러나 검찰은 ▲치흔이 사망추정 10분전에 생긴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치명상이 아니기때문에 범행의 직접증거가 될수없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사건이 재판으로 번질 경우 결정적 증거가 될수없다는 점에서 계속 강제수사를말려왔던것。

朴尙恩양 피살사건은 실상 J군이 귀가한 후에는「J군사건」으로 성격이 변질되면서 검찰·경찰의 두통거리가 돼왔다。

경찰이 이번에 수사본부를 재편 한것은 수사지휘 체계상 지휘 책임자를 지청장에서 지검장으로 바꾼 것을 뜻한다。그만큼 정책적인 결정을 구하겠다는저의를 나타낸것으로 볼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건도 아닌「강력사건」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가정은 어느구석엔가 이가맞지 않는다。객관적으로 볼때 경찰이 주장하는 새증거외에 다른증거는 임의성이 계속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반지의경우『뛰어가다보니 주머니에서 빠졌다』는 식으로 진술에특 숙했다는三井莊여관204호실의구조도제대로대지못하는등어술한구석이많다。

한여대생의죽음은후유증이 만만치않다。【任喆淳기자】

高여인 身體감정

辯護人신청따라 고문여부가려

서울龍山區元曉路 尹賢花씨 일가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에 대한신체감정이 31일 상오10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정형외과에서실시됐다。

高피고인의 신체감정은 지난달12일 이사건 2차공판때 변호인측이 경찰에서의 고문여부를 가리기위한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신청했었다。

신체감정 결과는 1주일뒤에 나온다。

피묻은 바지맡겨

청년이 세탁소에 釜山여인피살사건

【釜山=聯】속보=釜山瀛州洞 40대여인 살인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31일상오피묻은 바지를 세탁물로 맡은 세탁소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활기를 띠고있다。

釜山市影島區大平洞1街 제일기계세탁소 주인 張영주씨(33)는 사건다음날인 28일상오10시께 경상도 말씨를 쓰는 26세가량의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와 바지가랑이등 10여군데에 피가묻은 쑥색바지를 세탁해달라고맡긴후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고있다고 이날 경찰에 신고했다。

北傀、全청소년 紅衛兵化

金正日지지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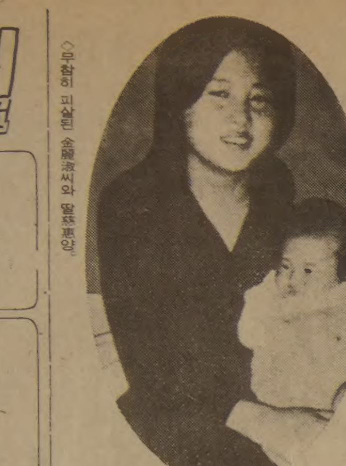
【東京30日=聯】북괴내부에서는 최근 모든 청소년층을 金正日의 홍위병으로 양성하려는 전근대적운동이 급속도로 전개되고있다고 北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30일 밝혔다。

이소식통은 이같은 책동이 지난24일 폐막된 이른바 社勞青 제7차대회에서 채택된 방침에 따른것이며 과거 중공의 홍위병이 毛澤東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로 하여금 金正日지지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키도록 함으로써 오는82년4월의 金日成 70회생일을 계기로 권력이양을 실현시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富川母女살해범 2명檢擧

防衛兵 "예비군通知書돌리다 우발犯行"

"強盜위장위해放火"…軍수사기관에 이첩



◇무참히 피살된 金麗淑씨와 딸慈惠양.

경기富川市驛谷洞 수정아파트 金麗淑씨(27) 모녀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 4일만인 30일하오 驛谷洞예비군중대본부소속방위병 崔漢相(21·경기富川市陶唐洞260의8)과 동료 방위병 閔泳鍾(23·경기富川市古康洞66의4)등 2명을 범인으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신병을 군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모녀살해범 崔漢相

◇공범 閔泳鍾

경찰에의하면 崔등은 사건당일인 지난달26일 상오11시50분께 예비군통지서를 돌리기위해 수정아파트A동102호에 갔다가 문이잠겨있자 평소안면이있는 건너편 金씨집에들러 잠시잡담을 나누던중 우발적으로 충동이생겨 閔과함께 차례로 욕을 보인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범행후 이들은 金씨가 자신들의얼굴을 알고있는 사실이 두려워 강도로 위장하기위해 방안에있던 코피포트전기줄과 넥타이로 金씨의 손발을묶고 金씨의생후 10개월된 딸 慈惠양의 입과코를 손으로막아 질식사시킨후 부엌싱크대위에있던 석유곤로를 가져와 석유를뿌리고 불을질렀다는것.

崔등은 평소에도 자주 예비군소집통지서를 배부했기 때문에 남편 金大植씨(26·신탁은행永登浦지점근무)는 물론 부인 金씨도 잘아는 사이여서 金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문을 열어준것으로 보인다.

경찰은▲金씨집사건현장에서 앞집102호로 전달될예비군소집통지서가 발견됐고▲사건당일 이아파트 주변에 崔등이 배회했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이들을 연행、조사하다가 일단신병을 풀어준뒤 증거를 보강、27일다시연행、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한편 경찰은 31일 숨진 金씨의 체내에서 채취한 정액이 2명이상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金씨의 체내에서 채취한 정액이 B형사람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崔는 혈액형이 B형이어서 증거가 확보됐고、閔은 O형이나 정액이 O형과 B형이 합쳐질때는 B형으로 바뀔수있다는 사실을 들어 공범으로 보고있다。

트럭훔쳐 窃盜행각

야음틈타 13회 億臺털어 5명구속

【光州=聯】光州경찰서는 31일 화물트럭만을 골라 훔쳐 물건을판뒤 차를버리고 달아난 1억대 상습절도단 8명중 李光鍾씨(25·주거부정)등 5명을검거,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싼값으로훔친물건을 사들인 鄭鍾泰씨(27·光州市東區鶴林2洞387의4)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전기밥솥등 전자제품42개를 증거물로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등은 지난20일 새벽1시께 慶北慶州시청앞 주차장에서 전기밥솥등 전자제품1백개를 싣고있는 번호미상의 2.5톤트럭을 훔쳐 光州로 몰고와 전자제품 1백개를 鄭씨에게 1백39만원에 판것을 비롯, 지난6월부터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1억5천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것.

이들은 주로 야간을 이용 慶北·全南北·忠南北등 전국 주요도시 주차장과 도로변에 세워둔 화물트럭을 절취, 光州등지로 몰고와 물건만처분하고 차는 버리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權力序列 1·2位로 參席

金日成·金正日,「社勞青」대회에

【서울=聯】20일 平壤에서 열린 北傀黨외곽단체이며 北傀청소년조직인「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社勞青) 제7차대회에는 金日成과 金正日父子가 나란히 권력서열1、2위의 자격으로 참석한것으로 밝혀졌다.

北傀가 지난해 10월10일 金正日후계체제를 공식화한 이후 金日成·金正日父子가 北傀의 공식행사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權力서열1、2위로 나란히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날 北傀방송들이 소개한 이집회의 이른바「主席壇」서열은 다음과같다.

①金日成 ②金正日 ③吳振宇(인민무력부장) ④李鍾玉(정무원총리) ⑤朴成哲(부주석) ⑥林春秋(중앙인민위서기장) ⑦徐哲(黨검열위원장) ⑧金仲麟(黨政治局員) ⑨延亨默(黨政治局員) ⑩金煥(黨政治局員) ⑪全文燮(金日成警護責) ⑫吳極烈(北傀軍총참모장) ⑬白學林(北傀黨軍事위원) ⑭許錟(부총리겸외교부장) ⑮鄭浚基(정무원부총리)

金相賢、내일전초전

來年1월 타이틀戰

【釜山=聯】프로복싱 東洋太平洋(OBPF)주니어웰터급챔피언이며 WBC 슈퍼라이트급 3위 金相賢이 1일낮 九德체육관에서 WBC동급 8위 태차·얌(泰國)과 논타이틀 12라운드의 경기를 벌인다.

내년1월 WBC챔피언 사울·맘비에 도전할예정인 金에게는 이번경기가 WBC슈퍼라이트급 타이틀재탈환을 위한 전초전이 되는셈.

퇴직 종업원넷등 용의자 5명搜査

금복주社長집사건

【大邱=聯】속보=금복주사장 金泓瑄씨집 폭발물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31일 협박편지에 발신인이 적혔던 達城郡月背지역 문방구에서 협박편지에 사용했던 것과같은 종류의 2백자원고지와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것을확인、금복주회사의 현·전직 종업원중 月背·花園지역 거주자 5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집중수사를 펴고있다.

이들 5명의 용의자는 현종업원 1명、전종업원 4명으로 이 가운데는 정신이상자와 노사문제에 대한 불만등으로 퇴직한 자가 있다는 것이다.

公務員 퇴근시간 내일부터 5시로

정부는 오는 11월2일부터 공무원의 퇴근시간을 현재의 하오6시에서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출근시간은 현재대로 상오 9시.

敎授등 15명부상

일부 학생들 쇠파이프등 들고 樂器등 파괴

서울大祝祭 폭력으로 얼룩져

지난26일 개막된 서울대개교35주년기념대학축전은 일부과격학생들의 폭력행사로 얼룩진채 31일 끝났다.

일부 과격극렬학생들은 교정에서 쇠파이프, 각목을 휘두르고 오물을넣은 사이다병을 투척하는등 무차별폭력시위를벌여 이들을 말리던교수및 교직원15명이 부상을입는등 유례없는 폭력사태가빚어졌다.

지난23일의경우 일부 학생들은 유인물을 통해『학도호국단과 어용교수는 폭력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 사전준비한 쇠파이프등으로 도서관기물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기까지했으며 제지하던 교수·직원15명에게 부상을입혔고 총장·부총장등 보직교수들이 떠밀려 다치는사태가 빚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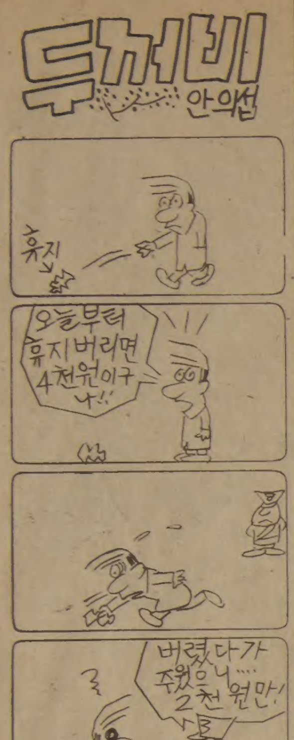
또이들은 친교가있는 교수·직원에게는『신변의 위협이있으니 시위저지에 나오지 말라』는예고까지했다는것.

지난27일하오2시 서울대 28동건물에서 열릴예정이던『우리의 내일과 유아교육』강연회에 참석한 연사 모대학李모교수에게는 오물이 든 사이다병을 던져 강연자체를 쑥밭으로 만들었고 이어 과격한학생들은 지난29일 하오1시께부터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열 예정이던 보컬 갤럭시공연장으로난입, 음향기등을 준비해 공연자체를 마비시켰고 東培根학생처장이 1시간이 넘도록설득했으나 아이스크림을 던지고 욕설을하면서 시종일관 방해했고, 이어 李賢宰부총장, 趙鍾洙학생처장등이 차례로 나와 대학의 선배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장에서 호소했으나 듣지않았다는 것이다.

또 30일 하오4시30분부터 페스티벌이 종합운동장에서 열릴예정이었으나 이들이 단상은 일부점거, 악기등을 파괴하는등 행사를 방해했다.

이번사태에 가담해있는 일부 극렬학생들의 이같은 무차별 폭력행위에대해 학교측은 학원의기본질서를 파괴하고,교수들에대한 용납할수없는 모욕이라고 지적, 대책을 협의중이다.

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들의 폭력은 교내자치활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시민들도이같은학원폭력사태를 개탄, 당국의 대책과 대다수선량한학생들에대한보호가시급하다고말하고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 (416)533·2361

KOREAN AIR LINES

OTHER BUSINESS CLASS

KAL PRESTIGE CLASS

새로운 Prestige Class 의 Dreamerette Seat 침대겸용의자는 등받침이 50°까지 기울어지는 크고 넓은 부드러운 가죽의자이며 좌석 앞의 넓은 공간은 여러분의 긴 여행을 더욱 안락하게 해 드릴것 입니다.

2등 정상운임(혹은 직행운임)에 $50을 추가지불하시면 Prestige Class 의 편한 좌석에서 1등 써비스와 같은 오도볼과 샴페인, 와인등 음료를 무료로 즐기시게 되며 또한 First Class 카운터를 이용하게되므로 신속한 탑승수속은 물론 목적지 도착후에도 기다릴 필요없이 수화물을 즉시 찾으시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미주에서 매주 20회 서울로 출발하는 유일한 항공사 입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 11회, 뉴욕에서 주 3회 그리고 호노루루에서 주 6회 출발하므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읍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절로 정성껏 모시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Prestige Class 를 이용해 보세요.

편명	KE001	KE005	KE015	편명	KE007
요일	화·목·토·일	목·일	월·화·수·금·토	요일	화·목·일
로스앤젤리스	10:00	23:20	23:20	뉴욕	23:55
호노루루	12:20 ▼ 13:30	01:40+1 ▼ 03:00+1	▼		▼
동경	16:10+1 ▼ 17:20+1	▼			
서울	19:30+1	07:30+2	07:20+2	서울	06:50+2

비좁은 좌석·넓직한 좌석

대한항공의 태평양 노선 B747 점보기에는 여러분께서 더욱 편안히 여행 하시도록 PRESTIGE CLASS를 새로 마련했읍니다.

같은 여행길에도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읍니다.

大韓航空

※운임 또는 예약에 대하여는 대한항공 또는 지정여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여행사 : 한국여행사(531-4607) 신세계여행사(536-2155) 서울여행사(535-6004) 제일여행사(535-2377) 토론토영업소 : (416) 862-8250

E REGION

近代民族意識 어떻게 발전했나

誠信女大서 오늘 강연회

反봉건·反침략적 自主運動이 발관

3·1운동등 革命의지로 基盤 넓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서구문화의 충격에 의해 눈을떴다. 아시아 여러나라처럼 서구에의해 발동된 우리나라민족주의는 韓末의 소용돌이, 한일합방, 3·1운동, 해방등의 여러분수령을 넘으면서 근대민족의식으로 성장했다. 誠信女大 인문과학연구소는 21일 하오2시 同大중강당에서 「한국근대민족의식의 발전」 이란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갖고 경제·사회·민족·종교사적측면에서 근대민족의식의 성장과정을 살핀다.

경제사적측면에서 근대민족의식의 성장과정을 더듬는 趙璣濬교수(高麗大)는 『개항후 근대적 경제의식을 맞게된것은 商工人계층으로 개항장의 客主, 旅閣및 보부상들이 서구자본주의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제, 『六矣廛등 특권市廛이 봉건적 상업질서속에서 정부의 권력에 밀착, 상업이득을 취한데 반해 봉건적 질서를 분쇄하고 자유질서를 세우려는 혁신적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근대민족의식의 성장을 찾아나간다.

어에반해 농민들은 미곡의 對日수출증가로인한 지주의 농민수탈증가, 工場製 면사·면포의 대량유입으로 농촌의 부업적 방직업이 타격을입음으로써 서구자본주의 문화에대해 거부적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권을 상실하게되자 지방지주들은 지방은행설립에, 서민출신은 고무신 양말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진출했다고 밝힌 趙교수는 『한국민족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통일이라면 남북한은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소分母에서 어떤모색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사적측면에서 근대민족의식성장을 분석하는 柳根鎬교수(誠信女大)는 『조선의 봉건사회는 내부적으로 양반·中人·常民·賤民의 신분으로분열된 단절사회에서 막연한 애국주의적 감정으로서의 민족의식은 있었더라도 개인의 국가체제질서에대한 공동운명체적인 歸屬의식은 없었다』고 들고 이같은 바탕에서 초기개화기에 나타난 인민관·사회관·역사관은 봉건분사회에 도전하는 논리를 발전시켰다고말한다.

이러한 논리속에 근대민족의식을 잉태할 수 있는 전제적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들이킨 柳교수는 『백성을愚民視, 민중의 잠재력을 국력으로 승화시키지못했으며 특히 조선의낙관적 史觀은 시련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현실과 유리된 점이있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었다』고 분석한다.

3·1운동 이념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근대민족의식의 성장을 민족사적측면에서 발표하는 趙東杰교수(國民大)는 『3·1운동의 혁명이념은 구한국당시의 의병운동과 1910년대의 독립군기지 개척및 의열투쟁에서 源流를 찾을수있으며 그런 혁명의지가 토지분쟁을 통해 민족基層으로 확대되어 나갔다』고 3·1운동배경을설명한다.

그러나 근대혁명이 자연법사상에 근거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3·1운동의 혁명이념에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 그것은 지도역량, 또는 지도이념의 한계성에연유한다. 實定法的 방법론을 제창한 개화개혁당론은 의병·의적을 역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지도이념의 한계는 3·1운동의 계획단계까지 지속됐다는 것이다.

崔奭祐신부는 근대민족의식성장의 종교사적분석에서 기독교의 수용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이러한 민족주의는 반봉건적 개신운동, 반침략적 자주운동으로 전개됐다고 말한다.

신분제의 부정, 여성과 아동의 인격존중으로 사회질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성장시키고 문화의 보편화, 근대적교육운동, 한글과 개화사상의 보급으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전시키는등 반봉건 운동에 앞장섰으며 언론, 기회, 시위운동, 무력한쟁으로 반제국주의운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李炳日기자】

科學기술 先進隊列에 86년까지

5兆4千億 투입 振興확대회의 설치

集積回路·마이크로 컴퓨터·光섬유통신·항공기등 國產化

정부는 제5차 經濟社會發展5개년계획(82~86년)기간동안 총 5조4천4백65억원을 투입, 86년까지 尖端기술인 大規模集積回路(LSI)·마이크로컴퓨터·光섬유통신·船舶과 海洋構造物의 기본설계및 엔지니어링을 국산화하는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진국대열로 끌어올리기위한 획기적인 科學技術부문실천계획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처가 29일 확정, 발표한 이계획은 기술도약을 위해 82년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技術振興擴大會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인구개발활동의 국제화 ▲新技術투자(Venture Capital)의 해외진출 ▲半導體·항공기등 ▲12개 核心產業技術의 토착화 ▲고급두뇌의 대량 양성 ▲기업연구소육성및 활용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선진기술도입등에 주력키로 했다.

80년대 과학기술개발의 구심체가될 기술진흥확대회의는 본회의로 관계부처 장관과 연구소장·산업계 대표들이 참석, ▲기술인력양성, 산업생산성향상, 품질관리대책·시험검사기관의 공동활용 ▲연구개발·국제교류·소비자 보호대책등을 주요시책을 결정하게된다.

또 해서는 한국科學技術院에 국의 MIT등이 材料, 機械 遺傳工學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하게되며 이를 통해 달러를 바탕으로 고급두뇌를 확보키위해 계획, 기간동안 3천3백10명을 고하기술과 정부出捐연구소를 통해 특별양성하는 한편 이와함께 국비및 차관으로 91년까지 7천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력을 해외 기술연수를 통해 질을 높이게된다.

과학기술처는 계획기간중 ▲반도체▲컴퓨터▲기계공업 고도화기술▲항공기기술▲시스템산업기술▲금속素材기술 ▲高分子공업기술▲生物工業기술▲醫療用전자기기기술▲섬유염색공업기술▲과학教具개발▲환경·국민복지기술등 12개核心기술을▲國策연구사업으로 정해집중 개발해 간다.

또 자원·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해 ▲저질탄 활용기술▲大白山鑛山帶광물탐사▲대륙붕 석유자원탐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核發電의 안전성 확보▲核發電설계기술및 연료가공기술을 국산화하기로 했다.

腹部 피부밑에 펌프 移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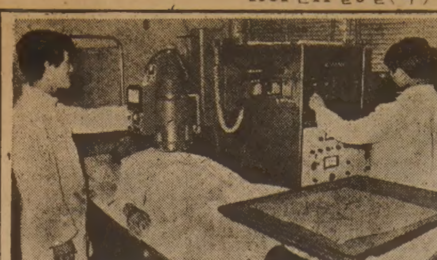
튜브로 연결 抗癌劑 투약

화학요법 보다 100~400倍 효과

肝癌환자의 壽命 2~3년연장 可能

美 엔스밍거 박사 새 치료법 개발

의학



◇간암환자들의 생명연장에 크게도움이될 치료법이 최근미국에서 새로개발되었다 (사진은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모습).

【앤아버(美)=聯合】 간암환자들의 수명을 최소한 2~3년은 연장시켜줄수있는 새로운 암치료방법이 최근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간암은 미국의경우 매년 5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이들환자들은 간암진단이 내려진후 수일내로 그 대부분이 사망하는것으로 알려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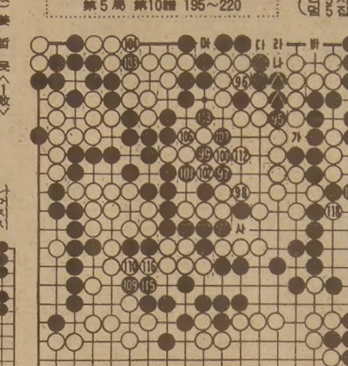
美미시간大메디컬센터의 윌리엄·E·엔스밍거박사가 개발해낸 새로운 간암치료방법은 일종의 내부투약시스팀으로 복부의 피부밑에 아이스하키用퍽과 비슷하게생긴 작은펌프를 이식하고 이를 통해 항암제를 투약하는것.

이 펌프와 간장동맥사이에 가는튜브를 삽입, 항암제를 투약하면 약이 간장으로 가게돼 투약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엔스밍거박사에 의하면 그의 실험결과 이방법을 사용하면 표준방법보다 약의 효과가 100배에서 400배나 높게 나타나며 화학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10譜 195~220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哲民〈1敗〉
黑(4段) 姜 勳〈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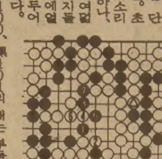
그러면 먼저 독자에게 남긴 숙제부터 풀어보자. 우선 黑「간」로 끊길경우 우상귀쪽 白은 「나」에 몰아 黑「다」白「라」黑「마」白「바」로 사는것은 초보적인 묘수풀이라서 논외로 치자.

따라서 白96으로 「간」 자리를 이을 필요가 없는데 정말로 96을 「간」에 잇는 낭비면 그야말로 白이 망해 버린다. 즉,참고도처럼 ✕표에 이으면 黑1 이하 7로써 白이 확각에 걸리는것이다. 黑7 다음은 독자가 각자풀어볼것.

이까닭에 白96은 正手。 그러나 거듭말하지만 白은 공연히 黑대마를 잡자고 대드는 바람에 우선 잡았던 ▲표 4점도 놓쳐버리고 大勢가 속발리게 되었으니 이제와서는 진짜로 잡아야할 판이다.

姜6段의 1分바둑

나머지 간은 단 1분초 초읽기소리가 하나, 둘...여덟...까지를 때에 들 두어 야한다.



白100, 黑101의 패는 부득이 하다. 白100으로 106쪽을 이으면 黑107이 선수。또 黑「간」와 「산」가 선수여서 이때는 대마와 대마가 수상전을 해야되니 전멸 도리가 없다.

자, 중앙의 패싸움이 한없이 계속되는데 과연 어찌되려나. 黑은 패감도 어지간해 보이고 시간도 넉넉하지만 白은 1분바둑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안되는 苦境에 빠져있다.

111·117…99, 108·105·114 120…102。 【五】

한국일보 詩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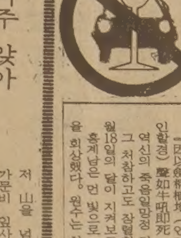
山과 마주 앉아

崔明吉

밤중에 山과 마주 앉았다.
나의 왕국으로 스산히 바람이 불어왔다.
어디로 가려는가.
집을 떠나 때로는 세상 보는 法을 깨치고。
왕은 침묵했다.
왕은 손가락을 치켜들 뿐이었다.

저 山을 넘으면 가문비나무숲이었지.
가문비 잎사귀 건너
산의 옷자락에 묻어 있는 별빛.
내가 그대에 닿아 넘칠 때
왕국은 일어서고 성문이 열렸다.
내가 기르던 짐승들은 아직 잠들어 있으니,
나는 또 어디로 방황 할까.
이 흐르고 흐르는 물빛 앞에서
하늘이 폭포로 폭포가 연꽃으로, 물은 돌로
마침내 왕은 입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히 일어서는 山
과 마주 앉아,
세상으로 가는 물이 곱지만은 않았다.

주간女性



킹스컵蹴球대회 忠義팀壯途올라

제14회 킹스컵국제축구대회(11월9~24일·방콕)에 출전할 忠義팀일행 24명이 윤태준단장 인솔로 30일하오2시 KAL편으로장도에 올랐다.

2연패를 노리는 忠義팀은 킹스컵참가에 앞서 홍콩·마카오에서 전지훈련을겸해 친선경기를 갖는다.

忠義팀은 北韓·濠洲·印度·폴란드·泰國B등과 예선 B조에 속해있고 A조는 泰國A·中共·싱가포르·파키스탄·印尼·말레이지아등이다.

占術家가 직업비관 母女함께 自殺기도

【全州=聯】 全州市校洞1가53 순씨(65)집에 세들어 사는 尹송금씨(39·여)가 딸 崔희양(11)과 함께 방안에 연탄난로를 피워놓고 동반자살을 기도, 崔양은 숨지고 尹씨는 중태에 빠져있다.

집주인 金씨에 따르면 이날아침 늦게까지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방안에 연탄난로를 피워놓은채 崔양은 숨져있었고 尹씨는 의식을 잃은채 신음중이었다는 것。

流星의 賦 <223>

李炳注作 李友範畫

秋風何處至 ㉑

역모의 발각은 지금으로 치면 불발(不發)된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사건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물론 신문도 주간도 없었던 시절이지만 그때도 무족언 천리행(無足言千里行)은 있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이다.

한성위 이목(耳目)이 이 사건에 집중한 것도 당연하다. 동인들은 전전긍긍 하고 서인들은 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10월14일。 독포어사(督捕御史)로서 정윤우(丁允祐), 이대해(李大海), 정숙남(鄭叔男)등이 삼남(三南)을 향해 떠났다. 이무렵 홍계남은 이영으로부터 『사태를 지켜만 볼뿐 일언반구(一言半句) 개입해선 안된다. 이이(李珥)의 제자가 이일에 개입했다고하면 엄청난 후환이 있을지 모르는 까닭이다』 하는 쪽지를 받고있었다.

15일。 황해도의 죄인 이기(李芑)는 정여립과 공모했다는 자복(自服)과 동시 능지처참을 당했다.

17일。 안악수군(安岳水軍) 황언륜(黃彥倫), 방의신(方義臣)등도 자복하여 사형을 받았다.

선전관(宣傳官) 이용준(李用濬), 내관(內官) 김양보(金良輔)가 전주에 도착한것도 이무렵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대로 여립은 도망치고 없었다. 여립은 그때 아들 옥남, 변숭복, 박연령의 아들 춘룡(春龍)등을 데리고 진안 죽도(鎭安竹島)에 숨어있었다.

진안현감 민인백(閔仁伯)이 관군을 거느리고 죽도를 포위했다. 바위사이에 숨어있는 여립의 일당을보고

『순순히 왕명에 따라 포승을 받아라. 비록 역모는 했으되 국법의 귀중함을 아는것이 인신(人臣)의도리가 아니겠는가.』

고고하고 부하들에겐

『저 자들을 생포(生捕)하여야 하니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말라』

고 일렀다.

10월 18일의 달이 교교하게 중천에 걸렸다. 여립은 바위틈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 크게 외쳤다.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로다. 이것은 역발산 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항우의 절후였거늘, 나의 절후이기도 한것이니라』

하고 칼을 들어 먼저 가장 심복이었던 변숭복의 목을 쳤다. 변숭복은 단번에 절명했다. 이어 여립은 아들 옥남을 쳤다. 그러나 죽지않고 땅에 쓰러졌다. 다음엔 실록 박연령의 아들 춘룡을 쳤다. 춘룡 역시 죽지않고 땅에 쓰러졌을 뿐이다.

이욱고 여립은 칼 자루를 땅에 칼날을 위로 해서 꼽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늘이 나를 버렸다』

고 외치고 스스로 칼날에 엎어져 목을 찔러 황소울음 같은 소리를 내며 절명했다. 「연려실기술」은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因以劍柄植地(인이검병식지)、自就刃割頸(자취인할경)聲如牛吼即死(성여우후즉사)』

역신의 죽음일망정 장렬한 것이었다。

그 처참하고도 장렬한 죽음을 서기 1589년, 10월18일의 달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홍계남은 먼 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 보며 스승 율곡을 회상했다. 원수는 하늘이 갚았다는 심정이었다.

모눈종이 위의 生 <242>

趙善作 金光培畫

모눈종이 위의生⑨

그들이 나를 찾을는지 모른다고 내가 설레며 기다렸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J시인의 경우는 내가 부산에 입원과 퇴원해 있는동안 그가 나를찾기 위해 집이나 병원, 또는 아버지에게 수소문했을지도 모른다는게 때문에 나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었다. 두들겨 패 고쳐서라도 데리고 살겠다고 했던 J씨의 패기만만한 선언은 그가 그렇게 장담하고 있으리라고 상상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U감독의 경우도 비록 한민일씨가 틀림해 하기는 했지만 연출부의 필요 때문에 나를 찾을 수도 있었고 한민일씨는 그가 해온대로 호텔의 어두운 정원이나 온양의 여관방에서 말했던대로 무조건 나를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따위 표현을 나는 또 다시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그는〈이중생활(二重生活)〉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를 설득해볼 것을 전제로 나를

서울로 돌아가도록 종용했었으며, 한갓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나를뒤좇아 내가 잠든 방에 침입해 들어오겠다는 그 에도 했었다. 적어도 나는 그가 한번쯤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볼 거라고 생각했었다. 대계했던 약속을 실천하기위해 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J씨와 나사이에 얽어났던 일을 회생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마지막날 밤에 일어났던 U감독과의 일을 해명하기위해서라도 그는 나를 한번쯤은 찾아오리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부산에서 돌아온 뒤, 아니 일정일씨의 고모라는 동보여자와 함께 연건동 이모님께서 집에 다녀가신 뒤 나는 줄 병원에 틀렸었고, 내게 어떤 미지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일이 있었는가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수실의 미스·유는 단한 건의 전화도 아무도 그런 전화를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 이후라도 혹시 전화가 걸려오면 나를 찾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나는 미스·유나 다른 간호원들에게 각별히 부탁해두었고, 처음 얼마동안 이틀에 한번 또는 사흘에 한번씩 전화를 걸어 내전(來電)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끝내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며, 그렇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계절이 바뀐 것이다.

그래도 세호의 노래가 거리를 휩쓸고 민희가 흥행으로 부터 돌아와 파랑을 일으키고, 또 어머니를 유화(綸畫)로 동안에는 그런 전학각 또는 단절감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노영지들마저 도 문간방에서 떠나자 나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고 잠자리에 누워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낮 동안 은애가 가끔씩 다녀갔지만 은애역시 그즈음은 호텔생활을 청산하는 일로 분주했다. 세호는 어딘가에 아파트를 사서 새 살림을 꾸리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도 내 외로움에 대해 신경을 써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은애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누나도 함께 살자고, 이것은 세호의 뜻이기도 하다면서 권했고, 아버지께서는 또 전처럼 박기사를 보내 나를〈놀음〉으로 불러내시기도 했다. 아버지를 뵈었을때 당신은「내가 걱정이다」하시기도 하셨고, 동생이신 어머니에 대해서는「좀더 잘해주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고 말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어머니를 여읜 슬픔에서는 구할수 있었어도 그 이상의 위안은 되지 않았다.

한민일씨의 침묵, J씨의 침묵. 내가 잠잠히 있다고 해서 그들마저도 잠잠히 있어야 옳은가. 마침내 나는 그들의 불가사의한 침묵을 향해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행동을 시작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 1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6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 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 :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3 : 00	2501 Warden Ave.	298-9031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3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 : 30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6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3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8 : 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 : 00 낮12 : 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